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UG 14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58 1981년7월6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July 6.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64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연예인들이 총출연, 민요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최헌, 이영숙·김재희(희자매), 윤시내, 이홍렬, 김효선(희자매), 최병걸.

여름밤 식힌 노래와 만담

=본사주최 고국연예인단 쇼=

윤시내 「최고」 과시, 이홍렬 연기도 일품

본지 일간발행 기념행사로 본사가 마련한 고국연예인단 쇼는 모국인들과 교민들간의 시대감각상 차이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3일 하오8시 토론토 센츄럴·테크니칼고교에서 열린 이 쇼는 서울<한국일보> 본사가 한국 최고의 현역 인기가수들만 모아 전문프로듀서가 구성한 쇼였고, 이들은 모국 출발전 1주일간 합동연습까지 했었으나 토론토에서의 공연에는 약 7백명이 참석, 빈 자리가 많았다.

이날 KBS-TV 사회자인 이홍렬군의 진부하지 않은 만담과 연기, 희자매 3명의 화음과 액션, 남자가수왕 출신의 최헌, 최고 남자가수상을 받은 최병걸등이 「오동잎」, 「앵두」, 「축제」, 「진정 난 몰랐네」 등 최근 힛트곡을 함께 온 4인조 올·스타 악단과 함께 화려하게 펼쳐 나갔다.

클라이막스는 최고의 여가수인 윤시내양의 등장.

작은 몸매에 찬란한 흰 드레스를 입은 윤양은「열애」, 「고목」등을 열창했다.

한곡 한곡을 혼신의 열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것으로도 유명한 윤시내는 어디서 저런 목소리가 나올까? 하는 감탄을 자아내는 가운데 갈지도 않고 허스키도 아닌 목소리로 청중을 압도했다. 윤시내는 평소에도 한국가요제의 여왕임을 의식, 신중하고 말수가 적었다.

공연 후반에는 다시 희자매가 나와 현대조로 편곡한 민요에 맞춰 디스코춤을 췄고, 최병걸과 윤시내, 윤시내와 최헌이 각각 「타향살이」등 흘러간 옛노래들을 중창으로 불렀다.

사회자 이씨는 노래 사이사이 최헌과 현대판「이수일과 심순애」를 엮어 폭소를 자아냈다.

만담중 이수일(최헌)은 다이아 목걸이를 바라는 심순애(이홍렬 역)에게 자전거 타이어 튜브를 주어 관중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특히 이씨는 심순애의 댄쓰장면을 1인2역의 모습으로 보여줘 하이·크라스의 연기를 과시했다.

희자매는 처음 등장때부터 늘씬한 몸매, 미끈한 각선미를 자랑, 한 관중은 "이곳 서양애들만큼 잘 빠졌다"고 칭찬했다.

한 청중은 "저 가수들은 현재 한국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귀에 익은 옛노래가 더 정이 깊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한국문화와 떨어졌는데 캐나다문화에도 깊이 접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이 공연을 통해 더 느꼈다"고 개탄했다.

모국 연예인단의 출국으로 고국TV계는 방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이들을 인솔해 온 최도환 서울본사 사업부차장은 말했다.

이들의 2시간 공연은 프로듀서의 각본대로 이 빠진데 없고 군살이 없었다.

KBS프로듀서인 신광철씨는 "쇼는 쇼답게 해야한다"면서 출연자들이 각본에 없는 말을 하거나 부를 노래를 빼지 못하게 했다.

그는 이번 쇼단에게 식사를 제공해준 뉴서울식당, 총영사관, 거구장과 꽃다발을 보내준 미도파선물센터, 뉴서울에 대한 감사말씀 부탁도 거절할만큼 원칙에 철저했다.

일행 15명의 연예인단은 4일 아침 다음 공연지인 시카고로 떠나면서 "우리가 후에 토론토에 올 때는 교민들이 우리를 좀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새 주한 워커대사 7월말 한국 부임

(워싱톤2일연합=본사특약) 새로 임명된 주한 미국대사 리차드·워커는 7월말 서울에 부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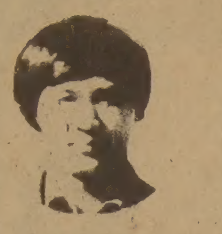
신임 워커 대사는 2일이임하는 전 주미대사 김용식씨를 배웅하는 자리에서 7월13일 상원인준을 받는대로 24일 선서하고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커대사는 오래동안 한국대사 자리를 갈망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부임하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 태평양전략본부에서 한·미 안보상문제점을 파악 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커대사는 미국외교관들 사이에 한국통으로 알려졌다.

회장단 없는 한인회

박태식부회장도 사표내



◇박태식 부회장

사임을 거부하던 박태식 토론토한인회 부회장이 4일밤 최양옥 이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박부회장은 이날밤 코로네이션·팍에서 열린 한인회 주최 야구대회 시상식에서 사임한다고 말했다.

박부회장 사표에는 현장에 있던 송관현 총무, 최이락 체육부장도 연석했다.

강우석 회장은 지난 26일밤 이미 사표를 냈었다.

이보다 앞서 3일밤 이사회가 구성한 한인회업무정상화대책위원회는 박부회장에게 사임을 재권고하기 위해 구상회, 조한철, 장순채씨의 3명을 대표로 선정했다.

대책위원회는 앞서 김문량씨등 3명을 박부회장에게 보내 사임을 종용했으나박부회장은 "이유 없이 후퇴할 수 없다"고 이들의 권유를 거부했었다.

박부회장은 4일 이훈모·조한철 전한인회장 으로부터 대책위원회의 의사를 통고받고 임원진과 상의한 후 사임키로 결정했다.

강우석·박태식·김광석 회장단의 임기는 83년 1월까지이다.

김광석 부회장은 지난 5월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한인회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표를 내지는 않았었다.

박부회장은 "사퇴하는 순간까지 의무를 충실히 했다. 그동안 누가 뭐래도 열심히 일한 것이 떳떳하다"고 4일밤 말했다.

그는 사퇴이유를 굳이 밝히지는 않았으나 "한인사회에 분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후임회장 문제를 곧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책위원은 "후임회장이 선출될때까지 임시운영위원단이 선출될 것"이라라고 전망했다.

박부회장의 사표로 지난 4월말부터 시작된 한인회 분규는 일단락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조이식목사 부임 순복음캐나다교회

◇조이식 목사

토론토 소[illegible]순복음캐나다교회(1030 [illegible])는 약 1년만에 새 담임목사가 부임했다.

미국으로 전출한 성악가 박순종 목사 후임으로 지난 30일 서울로부터 도착한 조이식(40) 목사(Tel. 745-3884)는 건국대학 영문과, 순복음신학대학 출신으로 대전여상고 교사, 하나님의 성회 미선교국, 중앙순복음교회(여의도) 부목사, 국제교회성장연구원 부감을 역임했다.

조목사 가족은 경희대음대 출신인 부인 장화전 여사와 세딸(혜령·혜원·혜나)의 다섯식구이다.

이 교회는 목회자 없는 동안 주일예배에는 조용기 목사의 설교녹음(카셋트) 등을 틀어 영혼의 양식을 삼곤 했다한다.

한국측 결의안 채택

모스코 세계무역회의

(서울6일=연합) 모스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무역센터 연합총회는 한국측 동의안을 절대다수로 가결, "미동맹국들간에도 상호이익과 세계인의 번영을 위한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 직접 교역한다"고 결의했다.

6일 김우근 무역협회 부회장에 의하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회의에서 김덕중 대우실업 사장등 3명의 한국대표단은 서울과 모스코간의 조속한 무역협정 체결을 소련정부에 촉구했다.

소련측은 북한의 반발을 우려, 만족스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동서무역의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는 미국등 세계 30여개국에서 2백여명이 참석했다.

세계무역센터연합회는 68년 세계무역 확장을 위해 미국 뉴올린스에서 창설되었으며, 한국은 72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우편파업장기화예상

트루도, 직장복귀 입법조처 거부

트루도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파업중인 우편노조원의 직장복귀명령을 입법화할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 우편파업은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3일 트루도 수상은 의회에서 야당의원의 질문을 받고 "정부는 우편 파업을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을것이다. 우편파업은 협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밝혔다.

6일 현재 24,000여명의 전국우편 노조원들이 연7일째 파업하자 약 2만명의 우체부도 일거리 부족으로 임시해고 됐다.

우편노조의 패로 회장은 양측의 공동협상 대표를뽑자는 노조측 제안을 정부가 거부함으로써 협상을어렵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연방정부측 대표 존스톤 재정위원장은 트루도 수상이 강력히 지지하는 대노조 강경론자이다.

한편 연방의회는 곧 여름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법을 통한 파업해결은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캐나다프로홋볼 막올려

토론토 19:18로 패배

캐나디안 프로홋볼리그가 전국 각지에서 2일 막을 올렸다. 2일 밤 토론토 엑스비션 스타디엄에서 열린 오픈전에서 토론토 아고스는 사스카치완·러프라이더에게 19:18로 패해이날 모인 3만5천여명 관중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토론토 아고스의 금년도 전망은 매우 흐리다. 사스카치완팀은 79년, 80년 통틀어 4승밖에 못올린 최하위팀이었다.

아고스의 다음게임은10일 몬트리얼에서 열린다.

(해설 : 캐나다 홋볼리그는 날씨관계로 7월초 시작 11월에 끝나며(미국리그는 9월~내년1월)규칙 일부가 미국리그와 다르다.

예를 들어, 캐나다 리그에서는 3번 공격에 10야드를 전진해야 되므로 킥커의 역할이 바빠진다(미국리그에서는 4번 공격 10야드 전진).

작년도까지 에드몬톤팀은 3연패를 한 바 있다.

개관파티 화랑태권도학교

화랑태권도학교(사범 저정갈)는 개관파티를 10일(금) 하오8시에 갖는다. 학교 주소는 676 Sheppard Av. W.(베더스트 1블럭 서쪽), 전화 630-3095 이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완 인 태 권 도
完人跆拳道
Wanin Taekwon-Do

이는
이경태 사범이
아직까지도 최일선에서 지도하는 사범이요 태권도
전문인으로써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가치가 중하고
태권도의 과학화와 무도철학의 정립을 위한 사명감이
중함에 따라 연구 정진하여 온 바를 체계화 시킨
태권무도 입니다.

1. 완인태권도는 수련상의 제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술을 익히고 그 과정으로서 무예를 닦는 것을 정도로 합니다.
2. 완인태권도는 무술및 무예로서의 지도방법과 기술적인 내용을 과학화한 무도이며 이의 절대적인 우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3. 완인태권도는 정신적인 발달및 인격적 확립을 위하여 무도철학을 정립·개발시킵니다.

Kyong Lee Taekwon-Do Centre
세계태권도연맹·카나다태권도협회가입 회원 도장

다운타운도장 615 YONGE ST. (at Isabella St.) 929-5511
북부도장 2281 YONGE ST. (at Eglinton Ave.)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Ave.) 759-2500
※962-3000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통화중이나 응답이 없을 때)

관 장 : 이 경 태
이곳 토론토에서 최초로 태권도 보급(1967)
건국대학교 태권도부 사범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
제3회 세계태권도대회 카나다국가팀단장
카나다태권도협회회장(1977~1980)

지도사범 : 이 현 우 태권도5단

조 사 범 : 존·웨잉거스트(3단), 랜디·매다(3단), 멜·암비랄리(3단)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SGW

◇쇼가 끝난 무렵 최헌이 「훌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뒤에는 희자매, 윤시내, 오른쪽에는 최병걸.

◇무게 있는 노래로 청중을 압도하는 윤시내.

◇최헌과 희자매、(이영숙·김재희)。

◇시원한 차림새의 희자매 3명、뒤에는 최헌、이홍렬과 윤시내、최병걸。

인류애와 의지의 상징
테리·팍스 그 인물
초지일관 마라톤 계획

◇「희망의 마라톤」중 암을 앓았던 그렉스코트(10)와 물놀이하는 테리·팍스

수술후 18개월간 병상에 있으면서 그는 휠·체어없이 삶과 투쟁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의족을 짚고 걸을 수 있을 때 희망의 마라톤을 생각. 결심을 굳혔다.

회복후 그는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상에서 읽은 성경을 되뇌이면서 캐나다 횡단 마라톤을 계획 했다. 죽음의 뜻을 깨달은 것 같은 그는 신음하는 환자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의지에 완전 사로잡혔다. 그는 운동재질을 살려 마라톤 연습을 시작했다.

그는 곧 고향 포트·코킷트램의 명물이 되었다. 그가 절룩거리며 시외각을 돌 때 마을사람들은 비웃음과 호기심으로 지켜 보았으나 본인은 개의치 않았다.

79년10월 팍스는 마라톤 계획의 후원자를 찾았다. 그는 캐나다 암협회 B.C—유콘지부에 보낸 편지에서 "나는 2년전 암으로 한 다리를 잃었읍니다. … 나는 이제 내 계획을 실천에 옮길 때가 온 것같습니다"고 말했다.

협회관리들은 그의 계획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팍스는 매주 협회를 방문, 그들을 설득하고 졸라댔다. 이때는 팍스의 어머니도 「미친 놈」이라고 했었다.

팍스는 4남매의 둘째였다. CN철도회사 조역인 아버지 로릭·팍스씨는 아이들에게 항상 남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말라고 교육시켰다.

팍스가 8학년일 때 농구코취는 조그맣고 비쩍 마른 그에게 "농구는 네 적성에 맞지 않으니 레슬링을 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팍스는 "나는 농구만 하겠다"고 우겨댔다.

팍스군의 마라톤 횡단을 따라갔던 친구 두그·알워드는 "우리가 8학년때 팍스는 나 보고 농구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엉터리선수 하고 연습하기가 싫었다. 그러나 2년뒤에는 팍스가 나보다더 잘했다"고 회상했다.

팍스는 고등학교때 톱·프레이어가 되었다"팍스는 패배를 싫어했다. 지고나면 미친 듯이 볼을 뒤기고 다녔다"고 알워드는 덧붙였다.

세인트·존스에서 팍스가 마라톤을 시작할 때는 팍스군과 알워드 둘뿐이었다. 뒤에 팍스의 동생 대럴(18)이 따라붙고, 온타리오에 이르러서야 캐나다암협회 관리들과 경찰차가 뒤를 따랐다. 구경하는 군중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가 마을을 지날 때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의 이름을 외쳤다. 어떤 여성은 흥분한 나머지 팍스를 껴안는 바람에 같이 넘어지기도 했다.

그는 군중들의 갈채 속에 하이웨이를 달리고 싶었다. 군중들의 흥분은 도를 지나쳐서 그의 숙소를 방문, 잠을 설치게 했다. "어떤 밤에는 한잠도 못잤다"고 성질이 급한 팍스는 투덜됐다.

주위사람들이 팍스의 신경질을 나무라자, 팍스는 "당신들이 나처럼 피곤하면 벌써 그만두었을 거요. 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요"하고 대들었다.

그는 썬더·베이에 이르러서 "이 마라톤이 끝나지 못해도 그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나는 몸이 가루가 되고, 또 심장이 터져도 계속할 거예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6월초 암의 특수약이라는 인터페론이 병세악화를 잠깐 중단시키자, 누구나 일시의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19일 그는 재입원해야 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친 영웅의 종말은 너무나 빨랐다.

(끝)

◇팍스가 달린 3,339마일과 못다한 거리(점선)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㉕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더우기 익툭, 파마와 앙그레알락의 죽은 시체때문에 더 지체하고싶지 않았다. 윈디베이까지는 백마일 정도나 떨어져있기때문에 길을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설매에 실려있는 10여마리의 꽁꽁얼은 백여우를 끌어내리고, 그자리에 아이들을 그의여벌의 옷으로 깔고 덮어서 앉혔다. 그런다음에 오텍호수를떠나 남쪽으로 썰매를달려 이틀후에는 윈디베이에 도착하여 난로에 장작을 지펴서 몸을 녹일수가 있었다.

한스는 바로 얼마후에덫을 돌아보고 돌아왔다. 그는 아이들을 발견하고놀랐는지 아닌지 전혀 내색을하지 않았다.

며칠후 한스가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했다. 왜냐하면 프란쯔는 이 사람들에게 품었던 분노와 그들의 비저축성에 참지 못하던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구하러 떠났기 때문이다. 쿠니이와 아노틱을 데려온후 그는 많이 변했고, 아이들이 완전히 회복되자 썰매를몰고 리틀힐스로 다시 올라갔다. 카꾸미호수 뚝에있는 카텔로의 이글루에는 이미 굶주림이 극하에 달해서 사람들은 거의 죽은상태에 있는것을 발견하고 가져온 모든 밀가루와 고기를 나누어주고 계속해서 다른 이글루에있는 사람들도 찾아 구원해 주었다.

오텍과 할로호수에는 아무도 없었고, 한때 그곳에서 살고있었던 각 가족들에게 어떤일이 있었는지프란쯔는 윈디베이로 곧 돌아왔다.

그리고 하루를 쉰 다음 가장 가까운 300마일 거리의 백인무역소를 찾아 나섰다. 이 무역소는 디어레이크에 위치한 작은것이고 혼혈인인 지배인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었다.

겨울철에는 사람이 전혀 왕래하지 못하고, 오직 구식 단파레디오의 모스코드에 의하여 외부와 접촉할 따름이었다. 프란쯔는 칠일만에 도착 했는데 그중 3일동안은 몸에 닥쳐온태풍속을 뚫고 가야했다.

프란쯔가 도착하자마자 그곳 지배인과 함께 무역소로부터 외부세계에 이할미우트의 긴급한 상태를호소하는 송신을 보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세지였다. 왜냐하면 내륙에서는 처음으로외부에보내는 송신이었고 내륙깊숙히 살면서 외부세계에 전혀 알려져있지않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프란쯔는 이 사람들과 그들의 긴급상태를 알고있는 털무역업자, 사냥꾼, 혹은 선교사를 통털어서 처음으로 이들을 구하기위해 손수행동을 취한 맨처음의 사람 이었다. 그는 첫구호의 손길을 베풀었던 사람이다.

메시지는 천천히 한단어를 두세번씩 쳐서 외부로 보내어 졌다.

이것은 처칠에있는 큰방송국에서 받아 남쪽으로또 전했다. 날자는 지나갔고 프란쯔는 오래 지연되는회답을 기다리느라고 디어레이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소식도 없이 또 날짜만 흘러갔다. 이 메세지에 무슨일이 생겼는지 아무도 알수가 없었다.

우선 당국은 이 메세지를받고 틀림없이그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했을것 이다.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이 나가기전에 조사를해야만 했다.

더욱이 이 내륙에사는 사람들로부터 당국에 협조를 요청한것이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왜 도움이 필요한지 이해할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움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메세지가 빠스로 송전됐다. 비행기가 구해지고 비행이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두번째는 성공이 됐고비행기는 뉴엘턴 맨 남쪽에 내려 짐을 거기에다 부렸다.

그동안 프란쯔는 비행기가 처칠에서 오는줄알고기다렸었고 이 항로가 제일 빠른 길이었기때문이었다.

프란쯔는 비행기가 빠스에서 떴다는 소식을 듣고 디어레이크를 떠나 가보니 목적지에서 200마일이나넘는 지점에 짐이 부려져 있었다. 시간은 시급했다.

프란쯔는 일백마일을 더 가서 짐을 발견했지만 이 구조품은 캠프에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줄수없는 물건임을 발견했다 휘풍이 전부였는데 아직도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었고 땔나무가 전혀없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없는 물건이었다.

(계속)

우편파업중 무료픽업

캐나다의 고질인 우편파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독자 여러분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신문을 받아보시지 못하게 됐읍니다.

본사는 파업중이라도 신문을 계속 발행했다가 파업이 끝남과 동시, 일제히 발송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본사는 각식품점과 음식점의 협조를 얻어 주 3일 배달, 독자 여러분이 무료픽업하실 수 있도록하며, 각종교단체 모임과 한인사회 행사때마다 신문을 전달, 무료배부토록 하겠읍니다. 그외의 배달방법이 없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파업이 오래 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지만 본사에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실을 감안, 독자및 광고주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앙망합니다.

— 한국일보—토론토사 드림 —

고려식품
동양식품
반도식품
한국식품(본점)
〃 (동부)
써니식품
서울식품
삼복식품
한 국 관
한국일보사

구독 및 광고문의
(416) 533·2361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자연은 부른다:

온타리오의 아름다운 주립공원에는 경이로운 일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주립공원에 캠프장을 예약 하시거나, 근처 휴양처나 개인 캠프장에 머물어 보십시오. 온누리 오주 131개소의 공원에 완전히 묻힐수 있는 여러가지 길이 있읍니다.

이 신청서를 오늘, 아래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Ontario Travel Parks,
Box33, Queen's Park,
Toronto, M7A 1N3
또는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NAME ADDRESS
CITY POSTAL CODE

Ontario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lan Pope Minister

ONTARIO yours to discover!

Original Art by Glen Loates

한국일보
우리의 ... 한국일보

海運·建設분야 緊密협력 합의

全大統領-李光耀首相 13개항 공동성명

定例 각료會談 開催키로

域內 평화安定 공동노력

李光耀수상 訪韓을수락

全대통령, 오늘 泰國향발

【싱가포르=2日=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과 李光耀싱가포르수상은 2일하오6시(이하한국시간)양국首腦회담을 결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양국의 경제계 지도자및기술훈련생의 상호교류와 민간부문의 合作투자를 증진시킬것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양국간의 경제및 기술정보의 활발한교환을 장려하고 海運분야에서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과 李수상은 이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추세가 고조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경제 여건의 개선과 新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히고 『또한 개발을 위한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협상이 가능한한 속히 개시되기를 희망했다』고 말했다.

13개항의 이성명은 『兩領導者는 근년에 들어 양국간의 통상및 경제협력이 현격히 증대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이러한 경제관계를 일층 확대, 증진하기위해 양국정부가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건설분야에서의 양국간협력이 상호이익이 되어왔음을 인정, 건설분야의 협력과 정보교환 및 기술인력의 교류를 통한 도시재획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증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南北韓 대화문제와 관련, 이성명은 『全대통령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도는 「1·12」제의와 「6·5」제의대로 南北韓 최고 책임자간에 직접 회담을 갖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李수상은 全대통령의설명에 謝意를 표하고 한국문제가 南北韓간의 대화를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싱가포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회담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全大統領 아세안巡訪日程
▲하오=방콕 돈무앙 기지 도착 ▲〃=방콕市廳방문 ▲〃=迎賓館도착(듀시트宮) ▲〃=國王부처예방 ▲〃=泰國수상및 閣僚접견(迎賓館) ▲〃=國王부처주최 晩餐(王宮內)

이성명은 유엔·非同盟회의 및 여타국제회의에서 양국이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李수상은 유엔憲章의 보편성원칙에 입각한 南北韓유엔가입의 早期실현을위한 노력에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지역정세에 언급한 공동성명은 『全대통령과 李수상은 양국이 위치한 각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연관되어있으며 아시아및 전세계의 평화, 안정유지에 중요하다는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히고 『兩領導者는 東北亞및 東南亞의 평화, 안정및 발전을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아시아및 지역내에서 수행하고있는 적극적이고도 중요한 역할및 한국과 아세안 海運國들간의 旣存友好關係에 비추어 또한 한국과 아세안간에는 민간경제계지도자회의가 있음에 유의하면서 아세안과 경제및기술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한국정부의 희망을 피력했으며 이와관련하여 兩領導者는 한국과 아세안海運國간의 互惠的인 협력증진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이성명은 『全대통령과 李수상은 캄보디아의 현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캄보디아문제가 유엔총회의 관계결의에 의거하여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하고 『스포츠, 예술, 교육, 매스미디어등 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민간교류와 상호이해를 더욱 증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요·김·셍 싱가포르 대통령권한대행 내외와 李수상내외의 한국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초청은 기꺼이 수락됐다고 이성명은 덧붙였다.

한편 全대통령은 3일상오 싱가포르방문을 마치고 아세안 4번째 방문국인 泰國으로 떠난다.

◇한국·싱가포르 양국首腦회담 全斗煥 대통령이 李光耀싱가포르 수상과의 회담을위해 영빈관회담장으로 들어가고있다.

全대통령 6·5提議 金日成이 직접 拒否

北傀 中央通信보도

【東京2日聯合=聯】 북괴 金日成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자는 全斗煥 대통령의 제의를 분명하게 거부했다고 북괴 中央通信이 2일 보도했다.

全斗煥 대통령의 대화제의에 대해 그동안 북괴노동당 기관지가 부정적인 보도들을 해오긴 했으나 金日成자신이 직접 全斗煥 대통령의 제의를 거절하고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日成은 이날 북한에 거주중인 소위 「前 남한정치인협회」의 창립25주년을 기념하기위해 보낸 메시지에서 이같은 태도를 밝혔다.

주롱工團시찰

僑民리셉션도參席

【싱가포르=2日=尹國炳특파원】 싱가포르방문 이틀째를 맞은 全斗煥 대통령은 2일하오2시10분(이하 한국시간) 이곳 샹그릴라 호텔에서 있은 僑民을 위한 리셉션에 참석, 僑民들을 접견한후 이들을 위로,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 상오11시 주롱工團관리청에 도착, 탕·아이·광 관리청회장과 프란시스·막관리청장의 영접을받고 3층회의실에서 광회장으로부터 공단현황을 브리핑받은뒤 관리청사앞 정원에 벤프수나무를 기념식수했으며 이날아침에는 이스타나宮內 골프장에서 요·김·셍 대통령권한대행과 친선골프를 치며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하오李相玉駐싱가포르대사가 싱가포르의 각계인사들을위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한후 밤9시30분 李光耀수상이베푼 만찬에 참석했다.

全대통령은 이날낮 僑民을 위한 리셉션에서 격려사를통해 『국내외의 우리근로자와 기업인들이 지금과같은 열의와 사명감으로 좀더 어려움을참고 열심히일한다면 우리경제는 지난날의 활기와 저

7월國會 소집

民韓, 추진방침

民韓黨은 2일상오 擴大간부회의를 열고 7월중에 제108회 임시국회소집을 추진한다는방침을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중순께 임시국회를 열기로했던各黨의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임시국회 소집시기와 議題등에관해 對與 절충을 벌이도록 高在淸총무에게 일임했다.

立法會議통과 國會·選擧法등

16개法 改正을 검토

民正

民正黨은 國會法, 국회의원선거법, 文化保護法등 작년 立法會議에서 통과된 1백89개法중 16개 주요現行法에 대해 改正여부에대한 검토작업을 하고있다.

李珍雨 民正黨 정책위의장은 2일 『民正黨은 그동안 他黨에서 개정을 주장하므로 爭點이 되어온 16개법률의개정방향등에 관해 예비검토를 했다』고 밝히고 『立法會議에서 통과된 법이라고해서 모두 改正할수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며 개정의 必要性여부에대한 검토가 있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民正黨이 검토하고있는 법률중에는 현행 1區2人制의 국회의원선거법을 선거비용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개정하는것을 비롯, 議員兼職허용범위의 축소, 각常委의 예산심의권 부활, 하오 2시로 되어있는 국회開會시간의 재조정등 國會法의 개정등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361

서울·中部지방 集中豪雨

2일간 最高2백65㎜ 漢江邊에 洪水주의보

오늘부터 갰다 7일께 다시 비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경기, 원동 한강상류지방에 2일자에 최고2백65㎜까지의 폭우가 쏟아져 일부 한강하류인접지역의 침수가 예상된다.

중앙관상대에 의하면 이번비는 중국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일본열도 중부까지 연결된 장마전선의 활동이 활발한데다 서해해상에 기압골이 걸려 있어 주로 중부지방에 많은비를 내렸는데 장마전선이 3일부터 점차 남하함에 따라 일단 큰비는물러간다는것이다.

이에 앞서 1일상오부터 2일하오까지 호우가 쏟아진 楊平은 2백65㎜로 전국최고를 기록했고 洪川2백17㎜, 春川2백13·6㎜, 水原1백69·5㎜, 서울1백66·1㎜, 仁川1백54㎜, 東草1백57·8㎜, 江陵1백32·6㎜등경기 이북지방은 모두 1백㎜를넘어섰다.

관상대는 3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한두차례 비가온후 중서부지방으로부터 점차 갠뒤 오는7일께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것으로 전망했다.

지방별 강우량은 다음과같다. (단위㎜)

서울=1백66·1▲仁川=1백54▲水原=1백69·5▲淸州=73·9▲瑞山=1백30▲大田=68·9▲江陵=1백32·6▲春川=2백13·6▲東草=1백57·8▲群山=37·6▲全州=33·9▲光州=88·2▲木浦=15·8▲麗水=19·9▲濟州=30·4▲大邱=31·8▲浦項=24·4▲蔚山=1백19·3▲釜山=84·5▲忠武=34·5▲晉州=66·8▲蔚珍=26·5▲大關嶺=1백61·4

住民들 注意요망

중앙재해대책본부는 2일상오8시10분을기해 홍수주의보 제1호를 발표했다.

재해대책본부는 이날 강우전선이 머물고있는 중부지방특히 수위가 계속높아가고있는 한강연안주민및 각공사장에서는 각별한주의를 기울여줄것을 당부했다.

마르크스主義 不變아니다

中共 胡耀邦, 實用主義노선 추구를 宣言

【北京1日UPI=聯】 신임중공당주석 胡耀邦은 1일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을 뜻하는 실용주의적 정책노선의 추구와 중공당내의 민주주의확대를 중공당의 새 정책지표로 제시했다.

胡는 이날 중공당창당60주년을 맞아 北京의 인민대회당에서 1만여명의 당대표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 참석, 주석취임형식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관련기사3면

그는 『마르크스 주의가 공산주의의 강력한 무기이며 지도이념이기는 하지만 무한한 인류역사의 과정에서 모든진리를 모두 포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수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마르크스주의는 무조건 따라야할 불변의 교리는 아니라고 선언했다.

胡는 中共 10억국민들에게 TV와 라디오로 생방송된 2시간에걸친 기조연설에서 자신은 중공당의 정치적성숙과 이념적단합, 국민지도역량의 함양을 통해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하고 싶다고밝혔다.

胡는 또 온갖 형태의 개인숭배사상을 배격하면서 집단지도체제의 중요성을 강조, 모든 당원들은 당회의에서 당중앙위의 지도인사를 포함한 어떠한 개인이라도 비판할 자격이 있으나 당의 이익에 손상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중대사는 해당黨위원회의 집단토의를 거친뒤 결정돼야하며 당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이결정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어느 한개인이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胡는 이 연설에서 본질적으로 鄧小平의 정책구상과유사한 온건론에 토대를 둔 일련의 사회주의정책지침을 밝히면서 중공내에 잔존해있는 좌익편향의 제거를 다짐했으나, 毛澤東추종세력을 의식, 毛가중공역사상가장위대한한국민적영웅이었다고찬양했다.

그는 故毛澤東당주석이 중공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서 그의 공적이 불멸할것이라고 일단 毛의 공적을 찬양한뒤 그러나 이른바 문화혁명을 강제로 실시하는커다란 실수를 범했다고 실책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교정책에 언급, 중공이 자주태세를 갖추어야하지만 외국의 경험을 열심히 연구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하면서 毛澤東이 세계정세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있었다고 말해 자신도 서방세계및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했던 毛澤東의 대외정책을 중시할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대만에 무기공급을 계속키로 한 레이건 美행정부에 대한 경고를 되풀이하면서 정신과 행동 양면에서 노예근성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대만의 본토귀속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다리미등 9개家電製品

주요附品 5년간 保有해야

工振廳 업체에지시

공진청은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등 9개가전제품 제조업체로하여금 주요부품을 최저3년에서 최고5년까지 적정량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했다.

2일 공진청은 가전제품의 기술개발회전속도가 빨라 모델이 자주변경되고 이에따라 생산이 중단된 기종에 대한 주요부품을 제조업체가 적정량을 보유해오지 않음에따라 소비자들이 아프터·서비스를 받지못하는등 큰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진청은 또 이같은사실을 제품판매때 품질보증서등에 명기토록했다.

공진청은 이보유기간이 모델이 변경되어 생산이중단될 경우 그싯점부터 부품 최저보유기간이라고 밝혔다.

공진청은 지난해 9월4일字로 TV수상기 냉장고등 11개 가전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적정량의 주요부품을3~5년간 보유토록 조치한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9개품목의 주요부품보유기간은 다음과 같다.

▲전기다리미=3년▲전기주전자=〃▲전기소제기=5년▲전기우물펌프=〃▲주서, 믹서=3년▲모발건조기=〃▲레코드플레이어=5년▲앰프=〃▲초음파가습기=3년

地平線

좀 오래된 영화지만 빌리·와일더 감독 작품에 「7년만의 外出」이란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됐던 이 영화는 일벌레 출판사 사장이, 아내가 피서 간사이에벌이는 바람기」를 코믹하게 그리고있다. 결국 남편의 「脫線」은 미수에 그친다는 줄거리지만 주연 마릴린·먼로의「몸매」가 한층돋보였던화제작이다. ▼이 영화의原題는 「더 세븐 이어 이치」다. 「세븐 이어」는 물론 7년인데 「이치」는 근질거림·가려움症이며, 나아가 참을수 없는 욕망·바람기란 뜻도 된다. 서양사람들 俗說로 결혼 7년이면 차차 바람기가인다고 해서 생겨난말이다. 그런 함축으로하면 「7년만의外出」은 재치있는 번역이라 할만하다. 「外出」과 「外入」은 意味上 어떤 연관이있을법도 하니까. ▼하지만 「세븐 이어 이치」는 원래가 옴을가리키는 말이다. 굳이 번역하면 「7년가려움症」. 옴이 워낙에 끈질겨서, 한번걸리면 7년을 괴롭힌다는 뜻이다. 그만큼 옴은 잘낫지를않는다. 약이 없어서가아니라 온몸과 온식구를 동시치료않고는 핑퐁式의 재발을 근절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과 옴의 「25년 流行週期」를 생각하면, 몇달째 번지고있는 올여름 옴은 심상히넘길것이못된다. ▼얼마전 남부지방의 옴이 더욱 기승을 떤다는 신문기사를 읽다가 문득 밥상머리 국민학교 4학년짜리에게 물은적이 있었다. 너희 학교에는 옴에걸린아이없지」. 웬걸 우리반에 한명이 있다고한다. 들어보니 옴에 걸리고도 계속 등교를 하는모양이다. 콩나물교실을 생각하며 약간 불안했지만, 그 보다는 옴에 대한 「警覺心」은 아예없이, 그저 「好奇心」만 보이며 「옴에 걸리면 어떻게 돼?」하고 묻는 것이 의아했다. 학교에서 옴에 대한 주의를 들은적이 없었던게 틀림없다. ▼진드기의 일종인 옴은 피부 접촉으로만 번진다. 옴이 교실을 중심으로 확번지는 패턴은 이때문이다. 물론 어린이 위생을 학교에서만 책임 질 수야 없는 일이지만, 학교가 유행센터처럼 되는만큼, 그만한 대비와 위생교육이 있어야 할줄 안다. 방학까지의 짧은 기간이나마 철저한 예방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더구나 여름철 바캉스의 大移動으로, 방학뒤에는 옴이 더욱 번질지도 모른다. 밤사이에 옮는다는 옴의 「夜行性」에 비추어, 피서지 숙박시설 점검도 미리미리 해 두어야 할것같다.

社会漫評

달도 차면…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야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illegible]
은 : 온스당 US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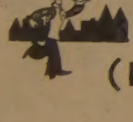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사 원 모 집
(BAKER MANAGER TRAINEE)

모집인원 : 약 간 명
자 격 : 제과(Bakery)관계 종사할수 있는 21세 이상의 남녀
년 봉 : 만8천불(이익수당40%)
훈 련 : 4주이상
SECURITY DEPOSIT : 만불 이상
장 소 : London, Brampton, Mississauaga, Aurora, Toronto, Sudbury, Ottawa, Vancouver
문 의 처 :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大中華藥材行

건강관리에
녹용과 인삼을
中國良藥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onto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P. O. Box #5181 Station "A" Toronto, Ont.
● 매주 수요일은 휴업
영업시간 :
오전11시～오후8시
전화 977－8858～9

그릇된「左의방향」을 是正
中共社會의 近代化 추구

中共黨主席 胡耀邦의 基調연설 要旨

【東京2日=宋孝彬특파원】 신임 중공당주석 胡耀邦은 지난1일 北京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중공당 60년을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제시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다음은 胡耀邦의 연설내용을 간추린것이다.

◇基調演說하는 胡耀邦 신임 中共黨主席胡耀邦이 1일中共黨創黨 60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하고있다. 【北京2日AP=聯合】

역사교류에 관해서

一, 중앙위결의는 우리당이 건국이래 32년간에 얻은 기본적 경험을 총괄하고 중요한 역사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적 평가를 내렸고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올바른것과 잘못된것을 구분하고 그에 수반하는 제반요소와 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근원을 찾아 분석했다. 이것은 또한 역사에 …

마르크스주의의 어떠한 힘도 중국공산당의 원칙에 기초한 단결을 파괴할수는 없다. 一, 중국공산당 창당이래의 60년은 중국의 해방과 중국인민의 행복을 위해 영웅적인 투쟁의 나날이었다. 마르크스주의의 보편적인 진리와 중국혁명의 실천을 보다 밀착통합한 나날이었으며 당내에서는 정의가 악을 타도하고 적극적인 국면이 소극적인 국면을 몰리친 세월이었다.

꿈꾸고있는 무리들은 당의 단결을 깨기위해 不和를 희망했다. 현실은 그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었다.

故人이된지도자에대해서

사람들은 毛澤東동지의 思念에 깊이 잠겨있다.

一, 사람들은 위대한 마르크스주의자 周恩來, 劉少奇, 朱德 諸동지를 생각하게되며 任弼時, 董必武, 彭德懷, 賀龍, 陳毅, 羅榮桓, 林伯渠, 李富春, 王稼祥, 張聞天, 陶鑄 등 諸동지들은 모두 당의 탁월한 지도자들로 생각케된다. 그들은 毛澤東동지와 더불어 중국혁명의 승리와 발전에 더욱 공헌을 했다.

一, 사람들은 또한 위대한 현대의 여성투사 宋慶齡동지 걸출한 중공의 지식…

마르크스主義·毛사상을 새歷史조건에 맞춰
中共黨 60년再評價…앞으로의 進路를 제시
"언제나 제3世界의 一員"

당의 대외정책

중공공산당은 인류의 진보와 국가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세계의 모든 정당조직과 동등한 입장에서 항상 우호협력을 견지하며 그들의 유익한 경험을 배운다.

一, 우리들은 어떤 외국 정당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을것이다.

一, 사회주의 중공이 보다 강대해지고 한층 번영한다하더라도 우리는 …

중공은 제3세계에 속하고 세계의 다른 인민을 영원히 지지하며 세계평화와 인간의 우호적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실히 평화공존 5원칙을 지키고 다른 국가와 한층 경제, 문화, 과학기술교류 협력을 촉진해 나갈것이다.

一, 중공은 다른 국가를 희생해가며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것이며 약한 나라를 협박하지도 않을것이고 어떤 상황아래서도 결코 覇權을 추구하지 않는다.

있어서의 毛澤東동지의 역할을 평가하고 毛澤東사상을 과학적으로 해설, 우리당이 나갈길을 명확히 제시했다. 6中全결과는 마르크스주의의 원칙에 서서 당의 단결을 지키고 강화된 당의 능력과 당의 정치생활이 건전하게 됐음을 증명했다. 국내외의 善意에 찬 友人들은 당이 완전한 단결을 이룩할 능력을 가질것인가 걱정했으며 惡意를 …

毛주석의 공적

一, 毛澤東사상은 중국공산당 衆智의 結晶이며 거대한 투쟁에 의해 중국인민을 통합시킨 승리의 集成이다.

一, 毛澤東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의 寶庫에 새로운 독창적인 이념을 추가했다. 毛澤東사상은 당의 지도사상이며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一, 중국공산당 창립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면서 …

역사의 위대한轉換

一, 선구자 蔡元培, 중공프롤레타리아혁명의 기수 魯迅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된다.

一, 78년12월의 11期3中全은 건국이래의 당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래 당은 사상, 정치, 조직문제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적인 면에서 한걸음 한걸음 중요한 정책결정을 채택, 실시 …

"다른國家 희생해가며 利益 도모않을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覇權 추구않는다."

했으며 그릇된「左의방향」을 시정했다.

一, 60년의 역사적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르크스주의의 혁명노선을 책정하고 견지하는 프롤레타리아정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며, 새로운 역사적시기에 있어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임무수행의 관건이 당에 있다는 것이다.

당의 이제부터의 임무

一, 새로운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건설은 다음 6가지 사항으로 집약될수 있다.

①모든 당원은 중국사회주의 현대화와 인민에 대한 봉사를 위해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당은 새로운 역사적조건에 맞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사상을 훌륭히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③당은 보다 전진한 형태로 민주적 생활을 추진하고 당의 조직과 규율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당은 정치적 순결과 전진성을 훌륭히 유지하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정권黨으로서의 혁명적 역량을 유지해야한다.

⑤당은 능력과 정치적성실성을 함께 가진 장년기의 간부를 더욱 뽑아서 각급의 지도적 위치에 임명해야 한다.

一, 당이 발을 들여놓은 혁명사업은 중공사회의 근본적 變革을 포함한 신성한 사업이며 전적으로 새로운 사업이다.

一, 혁명이 일어난 에서의 사회정세는 극도로 복잡했다. 따라서 당이 혁명투쟁중에 중대한 과오를 포함 몇가지의 잘못을 저지른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一, 당의 위대함은 부정적인 현상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보증하는 것이아니다. 결점을 극복하고 잘못을 시정하여 어떠한 외부세력의 파괴활동도 물리치는 능력에 있다.

一, 당은 사회주의에로의 전진중에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그같은 잘못과 과오는 한때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당은 투쟁중에 強固해진 광범한 간부 대열을 지니게 됐으며 물질적 기반을 닦았다. 全黨과 全軍, 全人民은 번영한 조국을 열망하고있으며 중공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 당의 바른 이념, 정치, 조직, 노선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중공의 사회주의사업의 중요한 요인이 될것이다. 처음은 수억인민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다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鄧小平의 5년 攻略 <3>
—「1中全」에서「6中全」까지

人民호응받은 "배부른 빵"
經濟의壁 뚫느냐가 課題
貿易收支·재정赤字매년늘어 經濟不安초래

◇理念보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소다를 즐기고있는北京시민들. 지금중공인민들은 달콤한물질적 만족에취해있다.

11期 6中全會를마친 中共黨이 30일 발표한「中央委선언」은 中共黨의 중심과제가 경제건설에 있다고 천명하고 인민의 생존과 물질적 富가 우선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이는「실천만이 이론을 검증하는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毛澤東노선에 집착하는 凡是派를 몰아붙인 實踐派의 경제지표를 밝힌것이라 할수있다.

鄧小平의 실천파는 凡是派가 취해온 경제정책의 과오를 물고늘어져 사상과 가난에만 젖어왔던 중공인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드디어 대세를 장악할수 있었다.

그러나 중공경제는 아직도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못해 실천파의 앞길은 험하기만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중공은 80년 무역수지적자가 32억 6천8백만달러에 달했고 외환보유고는 50억달러를 넘으리라던 추측과는달리 8억5천7백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의 신장률은 78년에 12%, 79년에 7%, 80년에는 5%로 점점 둔화되고 있으며 재정형편도 어려워져 80년도에 1백32억元의 적자를 보았으며 81년에도 1백20억元가량의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지수도 50년을 1백으로 보았을때 79년에 1백34, 80년에 1백40.7을 기록했다. 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앞질렀는데 이는 농산품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보인다.

중공은 79년11월1일을 기해 1백여종의 상품에 대한 물가통제를 해제했다. 가격통제가 해제된 품목은 육류, 계란, 우유, 생선, 채소등 생활필수품들이다. 가격통제가 해제되자 물가는 오르기 시작했고 이에 덩달아 식당음식값을 비롯, 각종가정용품, 자전거수리비까지 뛰어올랐다.

人民日報도 81년 元旦사설에서 중공경제는「엄중한 곤란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재정상의 엄청난 적자와 화폐남발, 물가상승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총리 趙紫陽도 작년12월열린 정치공작회의에서 형편없는 중공경제의 실상을 고백하면서 건설투자계획의 대폭축소와 재정규모를 감축하지 않을수 없다고 보고했다.

중공당국은 물가통제를 위해 특별小組를 전국각지로내려보내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가격지도를 하고있다고한다.

중공이 오늘의 경제불안을 겪는 원인은 과거 폐쇄적이었던 자급경제체제에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무리하게 단계적 도입하려 했기 때문이다. 외국자본과 기술이 도입되어도 이를 관리하고 운용할 기술자가 없어 많은 공장들은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갔다. 그때문에 작년겨울은 實踐派에게 가장 불안한 시기의 하나였다.

78년2월 제5기全人代 1차회의에서 成案된 야심적인 경제개발10개년 계획이 무리한 것으로 판정나자 1년후인 79년6월 全人代2차회의에서는 경제개발의 속도를 조정, 공업에서 농업과 경공업으로 바꾸는 3개년조정계획을 채택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실천파는 그책임이 있는 … 三自一包(自留地, 自營企業, 自由市場, 包産到戶)의 경제정책을 펴기시작했다. 3自1包의 개방정책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와 물가고를 부채질했고 무리한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趙紫陽은 신정책을 제대로 펴볼새도 없었다. 중공경제는 벽에 부딪쳐 서방과의 합작투자및 플랜트건설이 작년말에 속속 취소되는등 파문이 일었다.

과거의 폐쇄적인 계획경제에서 개방경제체제로 급격히 이행하는과정에서 도리어 경제의 통제력이 방향을상실해 버린것이다.

결과적으로 趙紫陽이 노렸던 급격한경제개혁정책이 좌초하는듯하자 기회만을 엿보던 凡是派는 반격을 시도했다. 그런 딜레머에서 빠져나오기위해 鄧小平세력은 한편으로는 毛澤東사상을 다시꺼내들고 정신교육을 강조하고 또한편으로는 중공인민의 원한을 산 4인방의 재판을 서둘고나와 위기를 수습했다.

최근 국무원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 房維中은 서구사업가들과 가진 세미나에서『중공도 경제성장률에 연연하지않고 투자를 축소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을 문제로한 새로운 10개년계획을 마련중이다』라고 밝혔다.

胡耀邦—趙紫陽체제가 이끌어갈 새로운 중공의 경제정책이 과연 어느만큼 효과를 거둘지. 이미 물질적 욕구에 차있는 중공인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느끼지 못하게된다면 실천파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된다. 【朴永喆기자】

中全會란

지난 6월27일부터 29일까지 北京에서 열렸던 中共黨 11期 6中全會는「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6차전체회의」를 줄여서 이르는 말이다.

중공의 국가기관은 국회에 해당하는 권력기관(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지방各級인민대표대회),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기관(국무원, 市省自治區행정기구), 사법기관(최고인민법원, 지방各級인민법원, 특별인민법원) 및 검찰기관(최고인민검찰원, 특별인민검찰원, 지방各級인민검찰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사실상 중국공산당의 통치체제하에 있는 中共에서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는 全黨大會격인 黨전국대표대회(全大會)다.

中共黨 최고 指導기관

黨의 최고결정기관인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1회씩 소집되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을경우 소집을 앞당기거나 늦출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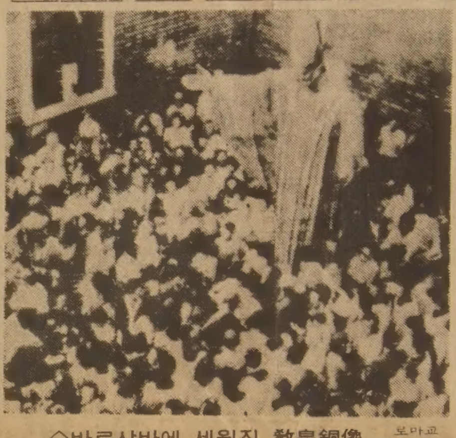
1921년 중국공산당창당이후 전국대표대회는 11회 소집되었으며 제11기 全大會는 77년8월12일부터 17일까지 北京에서 열려 주석 華國鋒의 정치보고를 확인하고 제11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했었다.

제11기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全大會)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으로 구성되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에서 결정된 사항은 黨규약의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 것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중앙기구(주석, 부주석 등)를 선출하고 정치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 후보위원등을 임명한다.

黨11기중앙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1中全會)는 77년8월19일의 제1차 전체회의이래 6中全會까지 열렸다.

黨1書記 직접選出
폴란드 일대政治改革 단행



◇바르샤바에 세워진 敎皇銅像 로마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동상이 지난79년6월29일 교황이미사를 집전했던 바르샤바시내 현장에서 30일제막되었다. 【바르샤바1日UPI電送=聯合】

【바르샤바(폴란드)30日AP=聯合】 폴란드 공산당은 오는14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제1서기를 전당대회에서 직접선출하는 전례없는 정치개혁을 단행할것같다고 폴란드 공산당의 한고위당국자가 30일 밝혔다.

폴란드의 현행법률은 당제1서기를 당정치국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공산당중앙위원회의 스차르미·투카시에비츠조직국부국장은 기자들에게 앞으로 열릴 波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당제1서기를 당대회자체에서 직접선출하든가 또는 중앙위가 임명토록하는등 당권력구조정책결정과정의 일대혁신이 단행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관리는 또 당초 5일간 계속될것으로 예정되었던 이번 당대회가 일정한 폐회일자를 확정하지 않을것이라고 처음으로 밝히면서 이번당대회에서 투표에 붙여질 이밖의 4대주요개혁은 ①지구당 서기국을 해당지구당대회에서 직선하고 ②현재의 전국당대회와 지구당대회가 새로운 대회대표단에의해 교체될 때까지 권한을 계속행사하며 ③지구당간에『자문단』설치를 허용하여 당내『수평』운동을 공식화하고 ④당중앙위의 업무를 촉진하고 중앙위와 정치국간의 연락업무를맡을 중앙위간부회의를 창설하는것 등이라고 말했다.

그로미코, 波방문

【모스크바1日聯合】 소련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는 2일 폴란드를 방문, 폴란드 지도자들과 일련의 중요한회담을 가질것이라고 빌리·브란트 前서독수상이 1일 밝혔다.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브란트 前수상은 이날 기자들과만나 그로미코의 폴란드방문이 소련최고회의 간부회의장겸당서기장 브레즈네프를 비롯한 소련 최고 관리들과의 협의끝에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日, 방위력增強거부
"힘에의한 平和유지 同意못해"

【東京2日UPI=聯合】 일본정부는 방위력을 증강해달라는 미측요청을『전적으로 불가능한것』이라고 거부하고 자유세계방위를 위한 일본의 공약은『질량양면에서 미국의 그것과는 비교될수 없다』고 못박았다.

미야자와 장관은 새로운 방위력증강계획을 수립하라는 미국의 요구가『너무 불합리해 일본으로서는 수락할수없다』고 말했다고 일본신문들이 2일 보도했다.

일본신문들은 리처드·앨런미 대통령국가안보담당보좌관이 방미중인 오오무라 조오지(大村襄治) 일방위청장관에게 미행정부가 일본의 방위력증강을 원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지난76년 수립한 방위계획개요를 재검토, 새국방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한데 대해 미야자와관방장관이 1일밤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력증강을 위해『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한것으로 보도했다.

"韓國 極東교두보" 앨런補佐官 강조

【워싱턴30日聯合】 미국과일본은 최근의 미·일정상회담에서 한국이『최전선의 교두보국가』로서 아시아안보에 극히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리처드·앨런 미대통령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이 30일 말했다.

앨런보좌관은 이날 오오무라·조오지(大村襄治) 일본 방위청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中共, 3頭體制로
胡·趙·鄧이 黨·政·軍맡아

【北京2日UPI=聯合】 胡耀邦이 신임중공당주석으로 승진함으로써 중공지도층은 당·정·군사 3부로 구성되는 소련식 3두체제를 형성하게됐다고 北京의 외교관들이 2일 말했다.

한 유럽출신의 외교관은 지난1일 胡耀邦이 중공당창설 60주년기념연설을 할때 鄧小平부주석이 그의 왼편에 趙紫陽수상이 오른편에 앉았음을 지적하면서 당은 胡가, 군사부분은 당중앙군사위주석인 鄧이, 그리고 國務院(정부)은 趙가 각각 장악, 이들 3인이 수뇌부를 형성하게됐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외교관들은 중공의 새로운 3두체제가 브레즈네프 공산당서기장과 흐루시초프 前수상의 집권초기에 나타났던 소련의 체제와 유사한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관들은 胡의 기념연설에서 그가 당을 강력히 밀고나갈만한 과단성있는 인물이라는 인상과 함께 매우 유능하고 솔직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IRP폭발사건 美조종에의한것" 라프산자니非難

【알카라2日聯合】 라프산자니의장은 1일 마즐리스회의에서 회교공화당(IRP)본부 건물폭파사건은 美國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아리

科學者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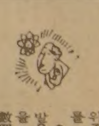
현대는 두뇌싸움의 시대다. 훌륭한 두뇌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富強을 약속받는다.

19세기의 대영제국은 해양을 지배함으로써 해가 지는 날이 없는 대국을 이뤘지만 日沒을 맞은지가 오래다. 경제학자 레스터·브라운은『IBM 폴크스바겐 히타치같은 세계적인기업이 늘어나서 日沒을 생각할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 낸것이 바로 인간의 두뇌, 특히『과학의 두뇌』였다. 과학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초스피드로 발전하는 과학은 그 위력이 날이 갈수록 더해 간다.

현대산업의 총아는 컴퓨터다.『컴퓨터가 지난 30년간 성취한 업적을 자동차산업에서도 이뤘다면 롤스로이스는 1대에 2달러50센트만 들여 제작할수 있을것이며 1갤런의 휘발유로 2백만 마일이나 달릴수 있었을 것이다』고『컴퓨터 세계』라는 잡지가 표현한 일도 있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은『과학자가 되고싶다』는 소년들이 많다는 유익한 조사자료를 뽑아냈다. 전국 각지의 국민교생과 중학생을 상대로한 이 표본조사에서 21.2%의 소년들이 과학자의 꿈을 불태우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 자랑스런 꿈을 가꿔줄 교육현장은 너무 빈약하다. 금년 2월 현재 전국 6천4백84개 국민학교에 과학교실은 2천2백86개밖에 안된다. 절대 소요숫자는 7천93개인데 그 32%에 미치지 못한다. 중학교는 55%, 고등학교는 45%정도라고 한다. 초라한 시설때문에 과학교육은 실험보다 암기위주로 흘러 어린이들의 흥미를 잃게 하고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은 두뇌개발을 위해 조기전문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미국에선 주별로 數理力이 뛰어난 우수아들을 뽑아 대학과정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여『과학왕국』의 위치를 지켜왔다. 소련은 2차대전 직후『수학·물리학교』라는 특수학교를 세웠으며 이스라엘에서도 국가적인차원에서 두뇌의 조기교육을 실시했다.

초급학교의 시설 확대를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 교육세까지 논의되고 있는게 우리실정이다. 자라는 새싹의 장벽에 부딪친 시설확충에 앞서 우선 재능있는『과학두뇌』를 발굴하여 나라에서 책임맡아 양성하는 일을 서둘러 주었으면한다. 치열한『두뇌전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다.

오늘의 小史 <3일>

▲연합국의 베를린 공동점령체제 발족 <1945>
▲문교부 한글간소화안 발표 <1954>
▲反共法 공포 <1961>
▲알제리 독립선포 <1962>
▲佛國寺 복원 <1973>
▲포항종합제철공장 준공 <1973>
▲서독연방의회, 나치및 일반살인 범죄의 時效를 폐지 <1979>

일본스테이크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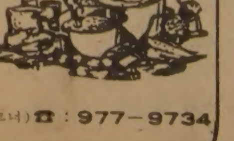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스페샬점심시간
11:45AM~2:30PM
5:00P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전화: 597-1255~6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아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약도: Queen, King, Bay, Yonge, Temperance St. Ⓟ)

SEA KING RESTAURANT
유명한 바다요리, 맛있는 중국요리
한국분들이 매우 즐길 수 있는 게요리, 가재미찜, 천엽요리, 잡채등을 항상 마련하고 있아오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3-135 DUNDAS ST. W. TOR.
☎: 977-3441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PM~4AM
토요일
일요일 : 12PM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977-9734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11A.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화~금 11:30AM—12PM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864-9347

독자가 만드는 女性페이지

10年前의 結婚반지

女子의 마음

아기가 없을때는 반지를끼고 일을해도 별로 불편한줄을 몰랐는데 아기를 키우다보니 반지를 끼고 기저귀를 채우다가 아기의 피부를 할퀴고 보드라운살에 상처를내기 일쑤여서 아예 반지를 빼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그후 10여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반지를 껴내보지도 않고 아예 반지가 있는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하루는 국민학교 다니는 큰딸아이가 아빠가 해준 엄마의 결혼반지는 얼마나예쁜것인지 한번만 보여달라고 졸라댔다.

딸아이의 궁금증을 풀어줄 셈으로 나는 10여년만에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어보니, 이게 웬일일까? 그렇게 헐렁하던 반지가 손가락마디에 걸려 들어갈 생각조차 않는것이다. 『엄마, 손가락이 왜 이렇게 굵어졌어?』 아빠는 엄마손이 하도 예뻐서 결혼했다고 하던데, 엄마 일을 많이하면 손이 굵어져?』

꼬마의 물음에 나는 쓴웃음으로 응답하면서 결혼전 그이의 말을 생각해봤다. 『버스를 탔는데 내 옆에 참 예쁜 손을 가진 아가씨가 있었어! 아무리 이 여인의 손이 예쁘지만 내 애인 손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으쓱해지던 데…』

옛 생각이 꿈처럼 떠오르며 나는 내 손을 내려다 보았다. 나의 예쁜 손을 훔쳐간 지난 세월이 서글퍼졌다. 【노병숙·부산시동래구연산5동1242의9 한국속독학원】

딸애를 울게 만든날

『엄마! 나 반장되면 내 책가방사줘』 어제 아침 불쑥 둘째 딸아이가 하는 말에 나는 건성 대답은 하면서도 설마 했더니 정말 반장 임명장을 한손에 펄럭이며 싱글벙글 돌아왔다.

그렇잖아도 새학년에는 책가방을 꼭 하나 사주기로 마음 먹었었지만, 고달픈「혼자살림」이라 가방하나 선뜻 살 여유가 없어서 나는 밥새다 해진 책가방을 이리저리 꿰매어 놓았다.

그런데 둘째가 오늘아침일찍부터 머리도 감고 두룹성한 제 언니옷을 빌어입는등 서두르더니 갑자기 훌쩍훌쩍 울고 있질 않는가? 나는 책가방 때문이려니 하면서도 그렇게 떼고 가주길 바랐데는 그 울음은 빨리 끝날것 갈지가 않았다.

『좋은옷 좋은것만 갖는게 반장이니? 열심히 공부할생각은 않구선…』

학교엘 늦지않게 쫓아보낼 양으로 뛰어들어가 뒷등을 펑펑 두어번 두들겨 주었더니 둘째는 울며불며 그 해진 책가방을 메곤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4년을 내내모범생으로 혼자사는 엄마의 고달픔을 잊게해주던 아이를 울려 보내놓고 엄마의 고통을 죄없는 어린가슴에 나눠주고만 어리석음을 금방 후회했다.

한낮의 화창한 햇살을 보면서도 펑펑 울어 버리고 싶은 내 마음은 그저눈밭이 와닿듯 시리기만하다. 【金照[illegible]·서울시마포구 창전동1의5號】

恩師님의 文集

나는 청계천변의 책방을 수시로 들르곤 한다. 거기선 장정이 호화로운 한질로 된 책과 새책처럼 깨끗한 헌책을 헐값에 사는 기쁨이 크기 때문이다.

어제도 아이들에게 읽힐 위인전을 몇권 살 생각으로 무수히 쌓인 책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어머나! 거기에는 은사님이신L선생님의 문집이 끼어있는 것이었다.

오래찾아 뵙지못한 송구스러움과 반가움에 가슴이 뭉클했다. 낭랑한음성으로『모든 美德을 포함하고 또 완성한 人格의 極致가 곧「仁」이라고 論語의 사상을 강의하시던 인자하신 선생님께서 엮으신 조촐한 문집이었다.

반가움에 책을 펼쳐든 나는 당혹함을 감출길이 없었다. 『왜그러시오?』 책방주인은 의아해서 나에게 물었다. 나는 얼른 책값을 치르고 나와 버렸다. 그책첫장에는 은사님의 친필 붓글씨로 『○○○씨께 드립니다』는 증정문구가 쓰여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책이 어떻게헌책방에서 나뒹굴게되었을까. 화려한 서가를 장식하기엔너무나 소박한 장정때문에 푸대접을 받은것이었을까. 증정받은 책을 고물상에 넘길수밖에 없었던 ○○○씨의말못할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그책을 보고 또보았다. 【김경숙·성북구 정릉2동 515의1 이철상씨댁】

화장품 빈병도 收去를

오랫동안 꽤 많이 모여진 화장품의 빈병과 빈용기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려니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든다. 견고하고 화려하기까지한 화장품용기들은 내용물이 화장품인지라 더욱 곱게 다루게되어 어느것 하나 흠도 나지않은 깨끗한 그릇 그대로 비워지게 된다. 그러나 버리기가 아까와 빈병을 모아놓고보니 막상 일상생활에 활용할 용도가 마땅치 않다. 화장품의 빈병이나 빈용기들도 음료수병처럼 모두수거해다가 재활용 할수는없을까.

적은량의 내용물(화장품)보다도 어쩌면 비용이 더 많이 들었을지도 모를만큼 화려하고 예쁜 크림통이나 화장수병들을 각화장품회사 대리점이나 판매센터에서 모두 회수해다 쓴다면 그만큼 비용도 절약될테고 터무니없이 비싸기만한 화장품가격도 조금은 내리게되지 않을까.

또한 새로운 공해문제로등장했다는 쓰레기 처리문제도 조금은 힘을 덜게 될것이다.

각 화장품 회사들은 지나친 선전경쟁만 할게 아니라, 빈병을 회수하여 재활용할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개발에노력을 경주한다면 절약하려는 알뜰한 소비자들에게 보다깊은 신뢰를 얻을수 있을것 같다. 【조영남·대전시중구산성동34의7호】

◇「여름의 江」 YWCA사진클럽 白淑鉉씨 (서울은평구 응암3동365의35) 의 작품。

근로여성…열심히 산다

공단에 발을 디딘지 어느덧 3년, 처음에는 익숙치못한 작업에 힘들고 고달팠지만 이제는 일에 숙달도 되고 예금통장속에서 조금씩 늘어나는 숫자를 헤아리며 마음을 달래보기도 한다.

주위의 동료들을 보면 이도 어린데 동생을 공부시키는 家長아가씨도 있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는 학구파아가씨도 있다. 알뜰히 저축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는 알뜰한 친구들도 많아서 나는 그들을 배우려애쓰며 열심히 살아간다.

그런데 지난번 TV프로에 부도덕한 性문제를 다루는데 한 참석자가 말하기를『공단에 있는 여자중에 임신중절이나 성경험이 없는 여자는 거의 없을것』이라고 말하는데는 듣고있는 내가 아연해 지지 않을 수 없었다.

『뭐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자기주변의 몇사람이 그렇다고 어찌 남까지 모두 그렇게 볼수가있나해서 나는 서글픈 분노를 삭혔다.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으며 슬픈감상에 젖는대신 통장속에서 조금씩불어나는 숫자를 헤아리며 미래의 꿈에 부풀어있는 공단아가씨들에게 희망의 말은 못해줄지언정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말을 할수있을까. 어렵게사는 사람을 멸시하고 함부로 취급하는社會가 아니라 따뜻이해로 보듬아주는 사회가되기를 빌어본다. 【정연옥·구로구구로동2 12의13】

시어머님의 야윈손

女子의 마음

오랜만에 시골에계시는 시어머님을 뵈러왔다가 일주일이나 묵게 되었다.

『얘 너는 집에 있거라』하시는 어머님을 굳이 따라 나서 어제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깨밭에 나갔었다.

팔순노인이 호미를들고 거침없이 흙을 일구시는 그솜씨에 감탄하면서도 며느리로서의 부끄러움을 감출길이 없었다.

일을 마치고 소나무 그늘밑에서 잠시 쉬는동안 무수히 차량들이 오가는 남해고속도로를 내려다보시던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얘야. 지금은 참 살기좋은 세상이다. 옛날엔 이밭에 올라오면 풀국새(뻐국새)나 울까 온종일 심심하고 해가 길어 고역이었는데 시방은 이렇게 산속에 앉아서도 차구경까지 할 수있으니 얼마나 좋은세상이고』. 『너희들도 여기와서 살면 좋겠다』 『도방(도시)살림은 잠깐이고 농촌살림은 오래오래 가는기라』

밭을 매고 산을 내려와 어머님의 손목을 잡고 고속도로를 건너면서 나는 기어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스물 아홉에 혼자 되시어 외아들을 기르셨건만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끝내 거부하시고 평생을 시골에서만 살아오신 어머니, 그강하시고 고집세신 어머님의 손목이 그렇게 거칠고 야위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강소순·경남김해군주촌면 망덕리본동(화촌댁)】

숲의 偉大性

나의 이력서

<農学 玄信圭>

玄信圭 (72)

62년은 30년만이라던가, 50년만이라던가, 그렇게오랜만에겪는 대한발이라했다. 그해엔 1월부터 5월까지 비한방울이내리지않아 모내기를 못한채 하늘만 원망하고있었다. 어찌 하늘의 탓만이겠는가. 한국임학회는 산림과 水源함양과의 상관관계를밝혀 세상에알림으로써 각계에 경각심을 일깨워줄기회가 될수있으리라믿고 6월중순께 전국에 조사단을파견, 군별로 林相과 벼이앙실적의 조사에나섰다. 나는 충청도를 맡았다.

충청도의 林相은 전국 평균을 웃돌만큼 비교적 양호했으나 곳에 따라서는 아직 사방조림이 되어있지않았다. 나는 대조적인 두곳을찾아 비교조사했다. 청원군 梧倉面양지리는 3백여정보의 울창한 산림을 끼고있어서 그 혹심한 한발중에도 모내기를 끝내고 논에는 물이 괴있었으나 반대로 그곳서 멀지않은 왕좌리와 섬재리는 6백여정보의 헐벗은 산아래에 있어서 모내기는 커녕 논바닥에선 먼지가 풀석였다.

가물었던 62年…山林의 水源함양조사

각지로 흩어졌던 조사단이 얻어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산림과 수원함양과의 상관계수는 +7로 나타났다. 완전 일치의 숫자가 +10이니 이 수치는 산림이 수원함양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를 웅변해준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뿐아니라 세계각국이 수백개처에서 실험한 결과와도 맞아 떨어진 사실이었다.

산림이 울창하고서 한발에 시달리는 나라없고 산림이 황폐한데 수원이 풍부한 나라 또한 없다. 홍수로 산의 황폐도와 비례함을 보아왔다. 수질오염도 그렇다.

공장을 세운다해도, 댐을 쌓았다해도 물이 없으면 효용성이없어 공허할 뿐이다. 그래서 미국같은 나라에선 먼저 산을 푸르게가꾸지 댐을 우선해서 고집하지 않는다고 한다. 산이 우거져 있으면 댐의 기능은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산림을「살아있는 저수지」로 이해하고 있다.

임학회는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산림보호시책과 과감한 투자를 관계당국에 건의, 조림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않음을 실증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임학회는 또 68년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산림개발에대한 항구적계획」이란 과제의 조사보고 요청을 받았다. 졸지의 용역이고 시일도 급했지만 沈鍾燮 李昌福 任慶彬 金慶洙 金東燮 申孝堂 金甲德 安建鏞씨등 학자들이 각분야별로 연구분석하여 보고서를내놓은 적이있다. 이보고서에서도 우리학계는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때의 용역비중 實費를 제외하고 남은40만원이 학회에 기증되어 기금마련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美미네소타대학의 지원으로 복구된 光陽연습림 관리사무실。연습림은 임과학생들의 기술도야 도장과 실습훈련장으로 활용되고있다。

山林은 댐에 우선하고「살아있는貯水池」임을 증명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주장이 한달음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다.

62년 여름방학때 光陽연습림의 秋山 학생훈련장으로 실습을가서의 일이다. 나는 학생30여명과 트럭을 타고 河東에서 求禮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맞은 쪽에서 통나무를 가득실은 트럭 5~6대가 열을지어 나오고 있었다. 이를 본 순간 학생들이나 나는『도벌이다. 그것도 연습림을 벤것』이라고 직각, 손수 차를 뛰어내려 그 트럭들을 막아 세웠다.

어디서 베었느냐, 반출증을 보자, 경찰의 눈은 어떻게 피했느냐, 울분을 터뜨린 학생들과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틈에 [illegible] 달아나던 荷主도 다시 붙잡혀왔다.

그들은 노기등등한 학생들의 추궁에전모를 실토했다. 운전석에 탔던 사람은 경찰관이었고 荷主는河東의 지도층유지였다. 그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절대로 용서될일이 아니었다. 경찰관에 그들을 인도하니 그지방의 기자도왔으나 오히려 학생들을 꾸짖었다.

이것이 당시의 세태였다. 소위지도층감시층이 앞장을 서서 산을 망가뜨리고있었던 것이다. 公義感이나 양심이없는 사이비지도자들에의해 겪은 산림 수난의 한단면이었다. 이러고서야 산이 남아날까 우리 일행은 가슴속에서 복받치는통분의 눈물을 흘렸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眼藥의 부작용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제한 안약중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액체로 되어 點眼하는 안약과, 연고로 되어 튜브속에 들어있는 안연고가 바로 그것이다.

안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하루 몇회, 한번에 한방울씩 점안하도록 지시되고 있다. 잘못사용하면 점안액이 오염될수 있으므로, 사용시엔 반드시앞끝(先端)이 속눈썹에닿지 않도록 2~3㎝간격을 갖고점안한다. 그리고 안약은 반드시 혼자 한사람만 사용하는것이 원칙이다. 또 안약은 지시에 따라 냉장고, 또는 광선이 없는 暗所에 보관해야한다. 안약의 선택엔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실례를 들어보자.

동공을 크게하는 散瞳劑가운데 아트로핀과 호마드로핀 등의 안약이 있다. 이들은 홍채모양체염 이라든가 포도막염치료에 절대 필요한 안약이다.

그러나 이들 강력한 散瞳劑 아트로핀안약을 자칫잘못 협우각녹대장 素因이 있는 사람의 눈에 점안하게 되면 급격히 眼壓上昇을 초래, 失明

잘못쓰면 眼壓上昇·全身中毒되기도

의 위험한 경지까지 도달할수있다. 한번점안하여 일단 동공이 散大되면 2~3주간후에야 보통크기로 돌아오게 된다.

만일 이들 안약을 잘못 삼킨다면 全身中毒현상을 일으키는 劇藥이기도하다. 그러기때문에 어린이들의 손이 닿는곳에 두어서는 안된다. 또이약을 부득이 신생아와 어린이의 눈에 점안해야할때는 0.5% 이하의 약한것을 사용해야 한다. 안약의 일부가 鼻淚管을 통해 코속으로 흘러들어가 全身中毒증상을 일으킬수 있기때문이다.

어린이들의 假性近視를 치료할목적으로 사용되는 조절마비劑 사이크로질 散瞳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전문의의 감독하에 사용해야한다.

綠內障환자에게 사용되는 縮瞳劑인 피로칼핀 안약도 역시 극약으로 꼽힌다. 함량이 0.5%에서 4%짜리까지 있다. 만일 이들을 자칫 잘못하여 홍채염 환자에게 점안한다면 홍채염이 더욱 촉진되어 증세를 악화시킨다. 심한 경우엔 실명까지 초래한다.

이밖에 알레르기性 결막염, 포도막염, 실질각막염 환자에 널리 쓰이는 코티손劑. 그중에서도 특히 덱사메타손(데카돈)은 환자에따라서 眼壓上昇시켜 녹내장을 유발케 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를 안약으로 해서 失明까지된 환자를 종종보게된다. 이약은 녹내장뿐아니라 白內障도 일으킬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또 이들 안약은 노병도 악화시킬수있다.

따라서 안약이라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안약은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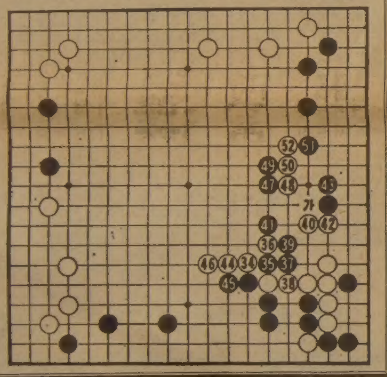
金在浩【醫博·가톨릭醫大 江南성모병원안과장】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2局 第5譜 34~52

(각 5시간 덤 5집반)

白(名 人) 曺薰鉉〈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



이날의바둑판은 7치짜리국상품 비자나무 판이고 돌은 유리제품이 아닌 진짜 조개와 돌。모두가 棋界원로였던 故朴震煥씨의비장품이었다고한다。

비장품이라니 말이지 觀戰記者席으로 마련된「책상」이 실은 韓末의 尹妃가쓰던「수라상」이었다。원래 鄭사장의 자당인 趙慈鎬여사는 尹妃와 연척관계가있어 궁중에드나들었던 관계로 유품몇가지를 얻게되었다고 한다。趙여사는 5년전까지 왕년에익혔던 순한국식예법과 음식조리법으로교육계에헌신하는 한편 韓國餅菓店「好園堂」을 경영하다가 작고하고 그뒤를 鄭사장이 물려받았다는것이다。

그것은 그렇고 盤面은 점입가경한데 갑자기 도전자가 과격한수를 두어버렸다。다름아닌 白34에대한 黑35。12분동안 생각했으면 충분히 변화를

白、快調의 進軍

읽을만한데、이수로 점잖게 45에늘어 白을 36에응수시키는 무난한 길을버렸던것이다。

白36은 당연한 수인데도 6분이나 소비하고 黑37은 이한수인지라 노타임。이수로 38자리를 따내면 白이 38에 몰아와서 黑이 불리하게 된다。따라서 黑37이하 白42까지는 이렇게 될 자리지만 黑은 뒤처리가 난감해졌다。黑43으로 44자리를 모는측이 좌상귀 白의 궁핍돌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것이다。

5분간을 고심한 黑43의 후퇴는 도전자로서 뼈저린일이었다。43을「가」로 밀어올리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좌우간 이렇게 후수를 끄는바람에 白은 44、46에 先行할기회를 얻고 黑47에도 白48의 호착이하 52까지 돌파하여 名人은 쾌조의 진군이다。黑은 하변을 지켜야하는데 어떨까。【一凡】

바둑소식

中共바둑 急成長勢 訪中日팀 30勝26敗

중공의 바둑실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최근 橋本昌二9단을 단장으로 일본기원과 關西기원의 정예기사 8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바둑사절단이 중공을 3주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친선대국에서 일본사절단이 30승26패를 거두어 겨우 체면을 유지했다고.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에 의하면 일본사절단은 北京·上海등 7개도시에서 대국을 가졌는데 전문기사가없는 중공대표들과 총호선의 바둑을 두었다는 것. 중공대표들가운데는 20세미만의 고교생들이 많았으며 이가운데 曺大元(19)은 일본의 小島高穗9단, 淸成哲也6단을압도, 聶衛平, 陳嘉銳보다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이다.

중공은 또 빠르면 1년이내, 늦어도 2~3년안에 전문기사제도를 채택할 방침으로 있어 곧 일본을 따라잡을수있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日에 73세高齡9단 69세記錄깬 中村옹

趙治勳名人이 지난 4월21일 일본기원사상 최연소인24세의 나이로 9단으로승단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난봄 일본기원의승단대회에서는 趙名人의 기록과함께 73세의 최고령 9단이 탄생,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일본기원刊「棋道」에 의하면 최고령9단 승단기사는 中村勇太郎옹으로 中村은 林有太郎이 69세때 9단승단을 한 지금까지의 기록을깨고73세에 승단을 했다는점에서앞으로도 오랫동안 대기록으로 남아있을듯. 中村은 특히 明治시대 출신기사라는 점에서 그의 노익장이 기대되고 있다.

장애자 바둑大會 한국기원 大會場

한국기원은 신체장애자의 해를 기념, 4·5일 양일간 同院 大會場에서 제1회 전국장애자 바둑대회를 갖는다.

참가자격은 장애자로서 대국이 가능한자로 신청마감은 3일 하오5시 同院총무부(☎9819)。

대회방법은 甲조(3급이상), 乙조(4~6급), 丙조(7급이하)로 나누어 토너먼트로 실시된다.

모순속의 生 <138>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㊼

혜정이는 모딜리아니의 여인상처럼 긴 얼굴을 가지고있는 여자였다. 그런 얼굴에 생각한 표정을 떠올리니까 더욱 불균형한 인상이었다. 어쩌면 혜정이가 먼저 미스노의 고백을 듣게될지모른다고 나는 얼핏 생각했다. 한민일이라는 정확한 이름까지 들먹인 혜정이가 아닌가. 내가 말했다.

『그럼, 친구라면 당연히 나보다 먼저 혜정씨가 고백받을 권리가 있지. 나야 뭐 그냥 목격자일 뿐이고. 혹시 영지씨가 날 친구로 생각하고 상담비슷한 거라도 청해온다면 하고 희망하는 정돈데, 나쁘게 말하면 호사(好事)취미고 좋게 말하면 세상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살았으니까 좋은 카운셀러가 될수 있다. 그런 거지 뭐. 미스노가 날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할수 없이 난 혜정씨한테서 호기심을 채우는 수밖에. 혜정씨, 간지럽죠 열심히 해줘요』

『얘가 얼마나 엉큼한데요. 윤호전도 애한테 들은게 아니라 윤호씨가 고백해서 알았다구요』

『윤호씬 누군데?』

『육군 일등병. 군대가면서 나한테 애를 부탁하고 갔어요』

『아하, 그럼 책임이 더욱 막중하네요? 잘해보세요. 잘자요』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혜정이와 노영지가 나를 방문밖까지 배웅했다.

그녀들의 방에서 나오기까지 나는 줄곧 노영지의 눈치를 살폈는데, 그녀는 측은해보일 만큼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일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찧고 까불때 소외감을 느끼는 것처럼 노영지는 그렇게 슬픈표정을 짓고 있는 듯했다. 그렇기도했고, 내심으로 이런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으며, 아울러 나에게들켰다는 사실을 결코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만은 분명했다.

노영지에게 접근한것이 오히려 서투른짓이 아니었다. 나는 조금 적이 났다. 미스노는 나에 관해서 즉시 그에게 보고할 것이며, 그렇게되면 사태는 내가 수습할수 없는방향으로 발전할것이 뻔했다. 미스 노의 방에서 나와 오히려 나는 더 절절매고 있는 형편이었다.

잠시후에 은애가 문간방에서 돌아왔다. 소곤거리 듯이 은애가 내 귀에대고 말했다.

『유성 온천에 함께 간 사람은 한민일씨 맞는다는데요?』

나는 자그마하게 고개를끄덕였다.

은애가 다시 말했다.

『우연히 동행이 돼서…그분은 무슨 일로 출장가는 길이고 영지는 오빠가 제대해 와서 집에 가는 길인데 우연히 고속 버스 터미널에서 만난 거래요』

『전에는 만난 일이 없는데?』

『아니죠. 걔가 아르바이트로 나가는 데서 파트너가 된일이 있죠』

나는 미스 노가 말한 진실과 허위의 분기점(分岐點)을 정확히 가늠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나와 친구 혜정이와 은애가 모두 타인일 뿐인 것이다. 타인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할 것이란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나는 내 처지에 약간의 분노를 느끼며, 모르겠다, 될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입을 열었다.

『실은 나 그 사람 부인과 친구야. 이걸 친구한테 알려주어야 할지 어떨지 고민이야』

나는 은애의 두 눈이 커다랗게 떠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두려움을 덮쳐 누르기라도 할듯 내가 계속해서 말했다.

『보통 자존심이 강한 애가 아니어서 아마 큰문제가 생길 텐데…. 우리도 그만 자』

그렇게만 말하고 나는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방으로건너갔다.

종합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R.R.S.P
•빌딩·상점

※10년이상의 경험
※모든 보험에 관한 문의 환영
최저의 프레미엄 보장
Stan Herman
(B)425-4994
(R)293-1708

1981년도
제9회 런던한인친선
골프대회

친애하는 한인골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본 런던한인골프협회에서는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아래 한인친선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며 보다 많은 시상과 아울러 흥미있는 코스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많은 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7월18일 토요일
오전10시30분
장 소 : Thames Valley Golf & Country Club(런던)
1-519-471-5100
회 비 : $25(Green fee & Dinner)
상 품 : 그로스 1, 2, 3
넷 트 1, 2, 3
(Annual Trophies)
Longest Drive, Nearest, Honest, Lucky Seven, Nearest hole
(Cash prize $100)
이외에 다수 부상 있음

신청및 연락처 :
신 동 삼 : 519-681-7149(런던)
김 태 수 : 519-438-6644(B)
519-471-1293(R) (런던)
김 홍 량 : 416-482-0166(토론토).

주최 : 런던한인골프협회
회장 신 동 삼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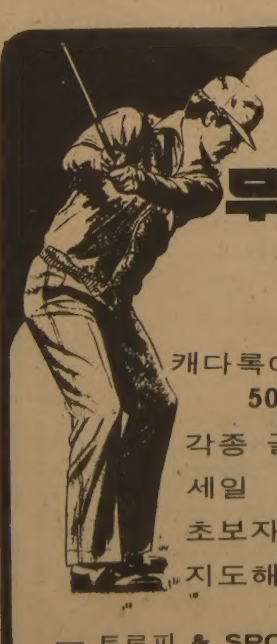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국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877-2731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GM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5-0954

炭鑛서 가스爆發 慘事

舍北 旌東탄광 有毒가스 꽉메워…28명 火傷

地下8백m坑서 救助작업중 또터져

鑛夫·구조대원등 7명死亡

坑속死鬪 15시간… 15명救出

◇必死의 鑛夫 구조작업 폭발사고가난 旌東매몰광부를 구조하려 갱입구로 들어가고 있다。【古汗=徐鐘道기자찍음】

◇救助되는 구조대원 지하갱에서 화상을 입은 한광부가 동료 구조반원에 의해 구조돼 나오고있다。【古汗=聯】

【舍北사고현장=鄭来鎬기자】1일 하오5시15분께 강원旌善郡舍北邑古汗2里 旌東탄광(대표 劉慶植·60) 중앙사갱 제3편우하단 5층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 채탄작업을하던 李文一씨(33·선산부·古汗2里 2班)등 광부21명이 매몰, 그중 李씨등 6명이 숨지고 李在錫씨(21·후산부)등 3명이 얼굴에 2도화상을 입은채 구출됐다.

또 사고발생 약10시간만인 2일 상오9시30분께 구조작업이 진행되는도중 또 한차례의 가스폭발사고가 발생, 숨진 동료광부의 시체를 찾으러 들어갔던 구조대원 김광섭씨(45)가 불에타 숨져 사망자는 모두7명으로 늘어났으며 旌東탄광 안전실장 한대성씨(28)등 구조반 28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1차폭발

제3편, 승경도에서작업을하던朱學吉씨(37)에의하면 작업을하다 갑자기 아랫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보여 메탄가스가 폭발한것을 직감했으며 이어 숨이 막혀오면서 정신을 잃었다는것.

잠시후 정신을차린 朱씨는 『동료광부들이 여기저기 쓰러져있는 것을보고 질식사태가 일어난것으로 판단, 갱내에있던 송풍기를틀어 환기를 하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사고가 일어나자 경찰은 동자부소속 광산보안지도직원6명과 인근광산광부등 모두1백여명으로 구조반을 편성, 산소호흡기 19대와 방독면등으로 무장하고 보갱작업을 하면서 무너진 석탄더미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구조반은 메탄가스가 연소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와 탄산가스등으로 접근이 어렵게되자 대형송풍기 2대를동원, 유독가스를 배출시킨후 이날하오11시40분께 갱구로부터 약7백90m거리에 있는 첫번째 매몰현장에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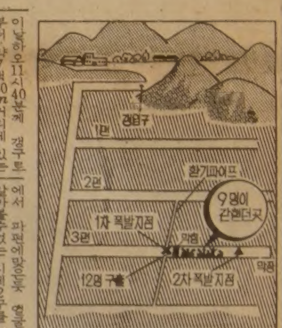
구조반이 즉시 대형파이프를 꽂고 『살았으면 대답하라』고 소리치자 갇혀있던 채탄계장 鄭英男씨(31)가 『살아있다』고 응답, 석탄더미를 헤치는 작업을 시작, 약9시간만인 2일 상오2시10분께 鄭씨등 15명을 구출해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던 李文一씨와 李徽雙씨(47)등3명은 끝내 유독가스에 질식돼 시체로 발견됐다.

2차폭발

구조반 34명은 2일 상오8시께 막장 안쪽에서 파편에맞은듯 얼굴을 알아볼수없는 시체2구를 찾아내고 나머지 한구를 더 찾기위해 상오9시30분께 두번째 매몰지의 흙더미를 걷어내고 갱도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2차폭발이 일어나 구조대원 김광섭씨(45)가 불에 타 숨지고 김인규씨(선산부)가 전신에 중화상을 입는등 구조반28명이 화상을 입고 후송, 古汗한일병원과 동원보건원에 옮겨졌으나 김씨는 중태다.

김씨등 갑반구조반 34명은 이날 상오8시께 병반구조반과 교대해 들어간후 약1시간30분만에 변을 당했다. 그러나 安淸一씨(36·후산부)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체는 모두 찾아냈다.



담배불·電氣불꽃등 事故원인 조사나서

사고원인

경찰은 석탄층에 부존돼있던 메탄가스가 채탄과정에서 새나와 갱내를 가득채운 상태에서▲전기배선에서 생긴 스파크나▲탄차와 레일의 마찰에서 생긴 불꽃 또는▲광부들이 담배를 피우기위해 성냥을켰다가 인화돼 가스가 폭발했을 3가지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계속중이다.

또 두번째 폭발은 매몰된 갱내에 남아있던 불씨가 구조반들이 구성을 뚫는 순간 외부공기의 유입으로 재차일어난것으로 보고있다.

가스많은 鑛山 종업원 4백80명

사고광산

旌東탄광은 갱내에서 메탄가스발생이 다른 광산보다 많은 가스발생 갑종탄광. 평소 광부들이 입갱전 경비원들로부터 24시간검색을 받는등 인화물질을 지니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이탄광은 지난56년에 광권등록이 됐으며 77년7월7일에 지금의 광업종인 劉씨가 인수,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며 연간생산량은 20만톤에 종업원은 광부2백80명을 포함 모두4백80명이다.

보상

광업소측은 숨진 광부들에 대해 산재보상규정대로 유족보상금 1천일분과 장례비90일분을 지급하고 이외에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旌善경찰서장 金圭南총경은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며 만일 사고가 방화대책의 불비등 업주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라면 의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몰려든 가족들 "아빠"부르며 大聲痛哭

유가족들

뜻하지 않은 2차폭발로 구조반원들까지 죽거나 부상을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갱구일대는 아직 시체를찾지못한 유가족과 구조대원의 가족까지 몰려와 가장의 안부를 서로확인하는등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사망자 유가족들은 탄광측이 安씨의시체를 찾지 못했다면서 2일하오늦게까지 가족들에게 시체를 내주지않고 얼굴이라도 보게해달라며 통곡했다.

구조대원 가족들도 『대형사고가난 직후여서 더욱 조심해야 할텐데 성급히 구조작업을 펴서 뜻하지않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발을구르며 탄광측의 무책임한 구조작업을 원망했다.

KAL機 突風속 위기일발

濟州착륙중 하마터면 활주로 벗어날뻔

승객88명無事、空港 한때폐쇄

10일 상오10시36분께 濟州공항에 착륙중이던 대한항공 보잉727 여객기가 돌풍에 밀려하마터면 활주로를 벗어날뻔하다 앞바퀴만 잔디밭에 꽂힌채 가까스로 위기를모면했다.

이사고로 기체는 앞으로기울어졌으나 비행기에 타고있던 승객88명은 뒷문을통해무사히 빠져나왔다.

사고여객기는 이날 상오9시34분 金浦공항을 이륙했는데 濟州공항활주로에 착륙할때 시속47km의 비를동반한돌풍이 불어 비행기에 가속이 붙으면서 앞바퀴가 활주로끝잔디밭 5m까지 미끄러지다 멈췄다.

이사고로 濟州공항이 1시간동안 폐쇄되고 대한항공은 이날 낮하오1시께 趙重建부사장을 비롯한 정비사등 13명을 특별기편으로 현지로 보냈다.

移葬재촉 분격 一家3명 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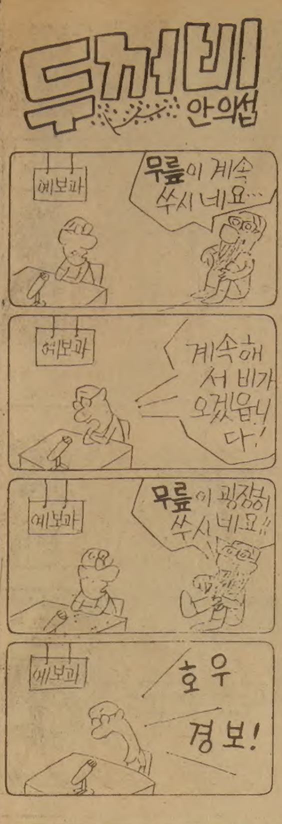
30代범인 自殺기도 重態

【光州=聯】남의 선산에 묘를 쓴 30대남자가 묘를 다른곳으로 옮기라는 산주의 끈질긴 요구에 격분, 6순어머니와 장남, 조카등 3명을 마을앞 하천으로 데리고가 차례로 숨지게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밤10시께 전남和順郡 東面壯東里앞 하천에서 安淸煥씨(33·서울 九老區加里峰2洞2의178)가 어머니宋順禮씨(69·和順郡 東面泉德里508)와 장남 成日군(5)、조카 成基군(5)등 3명을 하천물속에 차례로 머리를 눌러 질식, 숨지게한 후 자신도 자살하기 위해 달리던 시내버스에 뛰어들었으나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올上半期방위성금 5億5千6百萬원

국방부는 2일 금년도상반기에 전국에서 일반국민、교육계、실업계、종교계및해외동포들로부터 모두 5억5천6백74만5천5백24원의 방위성금을 기탁받았다고 발표했다.



浸水·산사태·築臺붕괴 잇달아

光明市 3시간에 百50mm、千여罹災民

서울 野山무너져 1명壓死

蔚山·浦項등 3개國道불통

지난달30일부터 제주를제외한 전국에 내리고있는 호우로 사망1명、실종1명등인명피해와 상당수의 가옥및농경지 침수、축대붕괴、도로및 교량유실등 수해가늘고 2일 하오 현재 장마전선은 계속 중서부지방에 머물고있고 서울지방、인천지방등 중부지방 일대에 많은비가 내리고있어 수해는 중서부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있다.

1일밤 10시10분께 서울城北區 鍾岩1洞54의36 高麗대학교뒤 야산이 폭우에 무너져내리면서 산밑에있는 孫金鍾(58)집을 덮쳐 배수구작업을하고있던 孫씨의 2남 京煥씨(24·現代건설 사원)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또 경기光明市 鐵山3洞과 下安洞일대에는 이날 저녁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사이에 1백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내려 두마을가옥 70여동이 침수되면서 1천여명의 이재민을 냈고 농경지1만5천여평이 물에 잠겼다.

또 大林1洞、新林11洞、新亭2洞、九老2·3洞등의 저지대에도 이날밤 비로 가옥이 물에 잠겨 주민들은 인근고지대로 대피하는등 소동이 벌어졌다.

또 2일 상오8시10분께는 서울麻浦區桃花2洞412의100에서 높이 4m、길이 10m의 축대가무너져 축대아래있던 金敦泳씨(50·수도수리공)의 15평한옥을 덮쳐가옥이 전파되는등 이번비로 서울시 전역에서 10여개소의 축대와 브로크담장이 무너져내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1일밤 서울시내 전철선로의 일부가 침수되거나 안전신호기가 작동되지않아 1백50여대의 전동차가 10여분이상씩 연착、승객들의 귀가가 늦어졌고 도심지대로변에서는 치열한 퇴근택시잡기경쟁이 벌어져 차도변에서 합승방향을 외치던 귀가길시민들이 달리는차량에 물벼락을 맞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지방의경우 강원三陟郡에서는 산곡대기에서 30톤가량의 바위가 국도위로 굴러떨어져 黃池—道溪간 38호 국도가 2일 상오까지 불통되고있고 平昌—寧越、蔚山—浦項간의 도로일부가 쏟아져내린 토사에 매몰되어 이 구간의교통이 불통되고있다. 그밖에 강원襄陽郡襄陽面 浦月里일대 저지대 농경지 3만여평이 침수되었고 釜山지방에서는 7군데에 축대와담장이 무너졌다.

◇築臺붕괴 집 폭삭 축대가 무너지자 그밑에 깔린집이 흔적도없이 사라졌고 매몰현장에서 주민들이부서진 가재도구를 챙기고있다。【서울麻浦區桃花洞】

初中高生 해외硏修 올해엔 不許

문교부는 2일▲각대학및 교육위원회에 유학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중·고등학생의 방학중 해외학연수는 올여름방학중에는 이를잠정 보류한다는등 8월1일부터 실시될 유학및 해외연수자유화에관한 세부시행지침을 각 시도교육위및 대학에 시달했다.

유학문호 확대에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위해 문교부가 이날 시달한 세부지침은 8월부터 전국 각대학의 학생처및 학생과와 시·도교육위에 해외유학에관한 정보, 절차안내등을 맡을 유학상담실을 설치토록하고 대학생의 단체 해외연수는 4주이상의 기간으로 지도교수가 참가하는 경우에만 추천하도록했다.

이 지침은 그밖에▲병역의무해당자중 82년도 국비유학응시자는 병역에 관계없이 응시할수 있으나 병역의무연기를 원하는경우는 82년3월1일이후부터 이를 신청할수있으며▲유학자격시험은 8월1일부터 폐지하고▲현재 외국에서 수학중인 학생은 8월1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유학여권을 교부받을수 있도록 했다.

大邱 金容大씨 仁川 金千洪씨 教育監선임 추선

大邱및 仁川직할시교육위원회는 2일 초대교육감으로 金容大大邱市교육장(60)과 金千洪仁川고교교장(56)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추천된 金大邱市교육감과 金仁川市교육감은 문교부장관의 제청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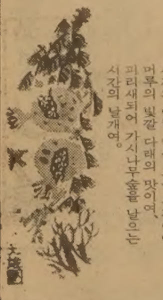
◇金大邱市교육감 약력 ▲金泉中(5년)졸업▲慶北道교위장학사▲大邱大明女中·多斯高교장역임▲大邱市교육장

◇金仁川市교육감 약력 ▲서울師大졸업▲京畿道교위장학사▲京畿道교위학무국장▲仁川고교교장

한국일보 詩壇

피리새 6

金汝貞



연록색 이파리로 피어나
반짝이는 시간의
반짝이는 눈망울이여、
파란 강물로 여울져
반짝이는 시간의
반짝이는 잎빨이여、
새빨간 석류알 아픔 깨무는
시간의 튼튼한 잇빨이여、
밤하늘에 터지는
시간의 爆竹이여、
목숨이 사랑의 잎을 피우고
사랑이 허무의 줄기를 뻗쳐
고뇌의 붉은 열매 아련토록 영글어
칼칼한 奧地에 터지는 불꽃이여、
말보다 바람
불보다 재
담배보다 연기
장미보다 그림자에 어리는
시간의 여린 마음 고운 살결이여、
머루의 빛깔 다래의 맛이여、
피리새되어 가시나무숲을 날으는
시간의 날개여。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외대동창야유회 공고

동문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여름 야유회를 갖고저 하오니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동반 하시고 전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 시: 1981년7월19일(일요일)
장 소: 서니부룩공원(Serena Gundy)
예년과 동일

※점심은 각자지참 바랍니다.
(불고기및 드링크만 동문회에서 제공합니다.)

연락처: 497—9661

외대동창 동문회장 오 세 희

사진의 전당

■ 각종증명사진 ■ 결혼사진
■ 현상, 인화 확대 ■ 회갑사진
■ 출장환영 ■ 돌 사 진

TECH PHOTO LAB
INDUK RHEE
PRESIDENT
630 BLOOR ST. W.
TOR. ONT.
☎535-7772
새한칼라현상소

한국女子팀 싱가포르 大破 123-38

선수全員기용…일방공략

臺灣존스盃 농구

한국여자대표 농구팀은 2일 自由中國서 막을 올린 제5회 존스盃쟁탈 국제농구대회 첫날 C조 첫경기서 싱가포르를 123-38로 완파하고 개가를 올렸다고 선수단이 농구협회에 알려왔다. 한국은 약체 싱가포르를 맞아 전반초 주전들을 기용한후 서서히 멤버를 교체, 선수전원을 기용하는 여유를 보이며 득점력, 개인기, 스피드등 농구기량이 월등 뒤지는 싱가포르를 일방적으로 공략했다.

예선C조에 속해있는 한국은 4일 自由中國 대표팀인 南航팀과 대전하며, 5일 필리핀과 예선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대회는 한국, 자유중국南航, 白宮등 15개팀이 4개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거쳐 각조상위2개팀이 결승리그에 진출, 예선서 싸운팀끼리는 재대결하지않는 라운드·로빈·시스템에의해 패권을 가린다.

한국은 이날 朴讚淑 金和順 林淑姬등 주전을 기용, 싱가포르와 맞섰다. 단신인데다 스피드, 패스·워크가 불안한 싱가포르는 한국의수비를 좀처럼 뚫지못했고 한국은 선수전원이 고루 리바운드볼을 잡아내고 자유자재로 슛을날려 초반부터 압도했다.

한국은 일방적인 리드를잡자 주전을 후보로 서서히 교체, 전반을 54-14로 앞섰다. 후반서도 한국은 가벼운연속경기를 하듯 싱가포르 수비를마음대로 요리하며 슛을 날렸고, 선수전원을 골가동하며 123-38로 대승했다.

◇제1일전적

▲C조

한국 123 (69-24 / 54-14) 38 싱가포르

◇조편성

▲A조=미국, 캐나다, 파레

▲B조=네덜란드, 서독, 영국, 스웨덴

▲C조=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자유중국

▲D조=자유중국南航, 뉴질랜드, 태국, 홍콩

에버트·만드리코바 爭覇

윔블던 테니스

【윔블던(英國) 1日(AP=聯合)】 체코의 하나·만드리코바(18)는 1일 윔블던테니스코트에서 벌어진 제35회 윔블던테니스대회 여자단식준결승전에서 같은 체코의 망명스타인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를 2-1(7-5, 4-6, 6-1)로 물리치고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또한 美國의 크리스·에버트·로이드는 같은 美國의 팜·슈라이버(18)를 2-0(6-3, 6-1)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라 만드리코바와 패권을 다투게됐다.

에버트와 더불어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됐던 나브라틸로바는 자신의 장기인 서브·앤드·발리공격에 만드리코바의 강서브에 밀려 무릎을 꿇었다.

보리, 6連覇 도전

윔블던 40連勝세워

【윔블던(英國)1日AP=聯合】 스웨덴의 슈퍼테니스스타인 비외른·보리는 지난76년 윔블던대회에 첫참가한 이후 작년까지 5連覇를 기록하고 올해대회에서도 濠洲의 장호 피터·맥나마라를 누르고 준결에 진출하기까지 40경기의 상대를 잇달아쳐 이른바「윔블던 40연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올·스타戰 오늘개막

會長旗쟁탈 서울시男女고교농구

서울시 농구협회장기 쟁탈 남녀고교 올·스타농구대회가 3일개막, 5일까지 3일간 장충체육관서 열린다.

금년 처음 열리는 올·스타 농구는 남자6개팀, 여자3개팀이 참가하고 있는데 고교재학생과 졸업생중에서 도 등록선수들이 팀을 구성, 출전한다.

남자부는 토너먼트로,여자부는 리그로 패권을가린다.

◇출전팀

▲남자=徽文, 大京商, 弘大附, 養正, 培材, 信一

▲여자=崇明, 崇義, 誠信

美청소년野球 참가

한국代表팀 결단식

제1회 세계청소년 야구대회(8~18일·미국뉴저지州 뉴워크市)에 출전하는 한국청소년 야구대표팀 결단식이 2일 하오4시 서울운동장회의실에서 거행됐다.

林光廷 대한야구협회장은 盧續鎬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면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전분투, 금의환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선수단(임원5, 선수20명)은 4일 하오9시30분 KAL편으로 현지로 떠난다.

◇청소년야구대표팀 결단식서 林光廷협회장이 盧續鎬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고있다.

淸州大등 결승진출

전국하키 선수권戰

【釜山=聯合】 제24회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2일째경기 東萊女中과 萊城中구장에서 계속 비가내리는가운데속행, 남대부의 淸州大와 大邱, 全北金堤女高가 각각 2승을거둬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제2일전적

▲남대부B조

청주대학 2 (1-0 1-0) 0 경복대학 (2승)(1패)

▲동남고부

대구달성 1 (1-0 0-0) 0 용산고교 (2승)(1패)

▲여고A조

전북김제 4 (3-0 1-0) 0 인천체고 (2승)(2패)

▲동B조

대구남 2 (1-1 1-0) 1 김해여고 (1승1패)(2패)

花郞 5~6명 소폭改編

축구協 20명線유지…내주초 확정

한국대표축구팀 花郞의 개편은 현시스템서 5~6명을 보강 또는 교체하는선에서매듭짓게 되었다.

대한 축구협회는 2일상오 협회회의실서 대표팀 운영및 정비방안을 논의, 花郞의 선수규모를 종전처럼 20명선계속 유지키로 결정하고 기술 지도 위원회와 花郞코칭·스태프(金正男·金鎬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주초에 花郞명단을 확정키로 했다.

花郞은 鄭榮增, 洪性號, 李榮武의 탈퇴로 현재 17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지도위원회서 3명의 경원선수를 보충하고 기존선수가운데서 花郞코칭·스태프의 의견에 따라 3~4명을 교체 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는 새로 구성되는 花郞팀을 오는8월 열리는 자카르타市 창립기념축구대회와 메르데카배 국제대회에 파견하여 경기력을 쌓도록하고 금년말에 花郞팀편제와 운영방안등을 재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周信湛 고등부서 大會新

용상 52kg級서 112·5kg들어

전국力道선수권

제53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및 제8회 문교부장관기 쟁탈 전국시도대항 학생 역도경기대회가 2백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2일 泰陵선수촌서 개막, 3일간의 경기에 들어갔다.

첫날 고등부 56kg급 용상서 周信湛(경북성광고)는 112·5kg을 들어올려 74년 孫閏鮮이 기록한 110kg을 2·5kg 경신하고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그러나 周는 인상에서 부진, 총계에서는 2백kg을 기록한 申鍾湜(경북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고등부 52kg급인상서 崔宏圭(포천종)는 80kg을들어 우승했고 총계서는 용상서 분전한 윤영현(호남고)이 182·5kg으로 우승했다.

◇첫날기록 (각체급1위)

▲중등부 44kg급 인상=김일곤(경북체)50▲동용상=김일곤75▲동총계=김일곤125▲중등부 48kg급 인상=평순덕(효명)60▲동용상=차순덕(효명)80▲동총계=평민석(평택)137·5▲중등부52kg급인상=박태민(효명)70▲동용상=박태민90▲동총계=박태민160▲고등부52kg급 인상=최광규(포천종)80▲동용상=윤영현107·5▲동총계=윤영현182·5▲중등부 56kg급 인상=김경환(수원)55▲동용상=김경환72·5▲동총계=김경환127·5▲고등부 56kg급 인상=신종식(경북체)90▲동용상=주신호(성광)112·5(대회신·종전110)▲동총계=신종식200

정유순, KO로 3회전 진출

전국학생복싱

제31회 전국학생아마복싱선수권대회 이틀째 경기가 2일 釜山九德실내체육관에서 속행, 중등부5체급및 고등부5체급등 총10개체급 2회전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등부 플라이급에서 정유순(광운공고)은 황인칠(광성공고)과 대결, 강한 좌우훅으로 몰아붙인끝에 3회1분54초만에 KO로 이겨 3회전에 올랐다.

또한 고등부밴텀급에서는 박용운(금성고)이 강태욱(보성고)을 초반부터 공략한끝에 2회48초만에 RSC승, 김진범(청주상)에 3회1분4초만에 RSC로 이긴 문성길(벽인고)과함께 3회전에진출케됐다.

◇제2일전적

▲중등부라이트플라이급

박대호(배재) KO 김봉수(단국)

김진호(연산) 기권 이병국(숭실)

▲고등부플라이급

정유순(광운) KO 황인칠(광성공)

이봉상 RSC 장관수

전국 종별體操

총계선 申鍾湜 1位

【釜山=聯合】 제36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가 27개팀, 2백여명의 선수가 참가한가운데 2일 釜山九德체육관에서 개막됐다.

2일간 남자 6종목, 여자 4종목의 패권을 겨루는 대회첫날 남고부팀에서 忠北高의 강순용은 국가대표 장태언(서울체고)을 누르고 9·35점을 기록, 1위를 차지했으며 여고부 마루운동서는 한병연(충남여고)과 이향심(청주여고)이 국가대표 鄭顯愛(청주여고)를 누르고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또 여고부평균대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淸州女高의 이향심, 최정숙, 이정희가 1, 2, 3위를 석권, 기염을 토했다.

탁구코치 李相國씨

아랍에미리트 진출

전국가대표팀코치인 李相國씨가 이번 아랍에미리트연방 탁구대표팀을 지도하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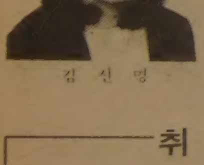
李相國코치는 오는8월1일부터 1년계약으로 대표팀 지도를 맡게됐는데 李在和전 코치가 濠洲로 감에따라 그 후임을 李씨가 맡게된 것이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SunLife OF CANADA

"여성보험인등장"

Sun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Congratulates Kim Shinmyong on her appointment as sales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s Toronto Metro Branch.



김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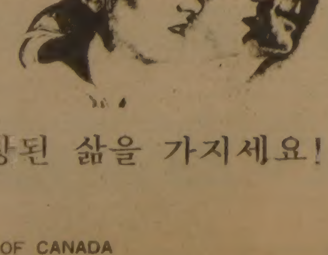
Sun Life는 종전과는 달리 「생명보험」뿐만이 아니라 교육, 연금, 주택, 사업금융 모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읍니다.

이질 문화권의 캐나다 대륙을 딛고 새꿈을 이룩하려는 이민생활에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는 보험에 관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성심 성의로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드리겠읍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들에 일익번영이 깃들기를 앙망 합니다.

김 신 명 드림

취급보험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연금제도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B)922-3111 R)439-8885

이런것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NORITAKE 1981 BLITZ SALE)

- 이번에 Noritake회사의 특별한 배려로 저희 상점을 통해서 구입하시는 모든 고급 Noritake China set를 정가에서 30% 감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지정된 10개품목은 정가에 반액으로 판매합니다.
- 대형 접시와 만두, 냉면그릇으로 쓰기 좋은것과 찜 그릇등 정가에서 70% 감한가격으로 판매하겠읍니다.
- 식당, 교회 혹은 단체에서 비품으로 쓰시기 좋은(Heavy Duty) 그릇을 정가에서 80% 까지 감해서 공급하겠읍니다. (예 : $10짜리면 단 $2에)

※사고저 하시는분은 이번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AMIK CRAFT SHOP

특가기간 : 6월23일부터 7월11일까지
상점소재지 : 4841 Yonge st.
(yonge의 sheppard의 sheppard center내)
전화번호 : 221-5990 Mrs. 고

"금붕어는 이상적인 애완동물이죠"
"이놈을 먹이는 데는 돈이 거의 안듭니다"
"게다가 금값이 자주 오르는걸 보면…"
"금혼식 선물로는 안성마춤이지요"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먹

張吉山 (1604)

黃晳暎 作
崔然石 畫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64)

미륵님에는 장길산과 김기와 강선흥이 월정사에 당도하였다. 월정 통문에는 길산과 김기만이 지목돼 있었으나, 선흥이는 중이 되어버린 이갑송이가 온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도 따라가겠다며 앞장을 섰던 것이다.

길산이도 갑송이를 못만난지가 어언 일곱해나 되었으니 이제 그가 대성법주라는 중이 되어있는 꼴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재인말에서 광대로서 기룸과 설움을 함께 하며 자라났고, 땅재주며 춤이며 싸움질을 할때에도 언제나 붙어 다녔고, 해주서 명화율로 함께쫓기던 생각들이 시냇물에 산천이 비춰흐르듯 지나갔다. 그가 금강산으로 운부 큰스님을찾아갈제 동구밖에서 그의 아내 도화와 간곡하던자를 붙잡아 혼내주던 일 등등이 떠올랐다. 길산이 금강산에서 두 해, 남원산에서 한해의 수도를 마치고 구월산에 돌아왔을때에는 갑송이는 이미 파가(破家)하고 산문을 찾아 들어간 뒤였다. 다만 지나치는 풍문으로 그가 운부의 호종승이 되어 있으며 해마다 금화 수매사에서 여름을 보낸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다.

김기 또한 이갑송에게는 잊을 애정과 감회가 없지 않았으니, 일찌기 그가 한양에 환로를 엳기 위하여 갔다가 사기만 당하고 가산 탕진하여 돌아올적 삶이 바뀌는 계기를 갑송이가 지어주었던터였다. 그는 갑송이의 우직한 … 문득 씨는 선비로부터 백성들의 편에 서는 식자(識者)가 되었던 것이다. 김기가 주막에서 갑송이를 만나지 않고 목을 매어죽었더라면 그는 헛된 공부로 더러운 세상의 파락호가 되어 묻혔을 것이었다. 다시 김기가 유생 가문의 체모 때문에 식솔들과 숨어 있을제 갑송이는 찾아와서 그를 질타하였다. 이제 김기는 녹림당의 모사가 되어있음을 후회하거나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떳떳하게 죽어간 노모와 아내처럼 어느 편에 서있어야 하는가를 잘알고있었다.

그들은 활빈행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여 우선 자비령 보다 더욱 안전하고 깊숙한 은신처를 명구에 더 이룰작정이었다. 만황이네 장채 없은 더욱 활발해져서 그들의 경비는 매우 요족하였다. 그들은 서흥 관아에 출몰한 뒤로 구월산의 토포가 있고나서 좀체로 활동을 하지않고 지냈었다. 이제는 전국의 연계를 가지고 그 세에 호흥을 맞출셈이던 것이다.

길산은 월정사에 당도하자마자 안부당의 병환에 대해 듣고는 명부전 옆 보살을 방으로 뛰어갔다.

『어머니… 저 왔읍니다』

길산이 방문을 벌컥 열고 외치니, 계화와 백련이가 입에다 손가락을 대며 쉬이 하였다.

『방금 정신이 혼미해지시더니 잠이 드셨나 보우』

길산은 안부당의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았다. 피와 살을 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를 태아로 받아낸 장충과 더불어 챙겨주신 분이었다. 그저 부처 섬기는 일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리라 여겼던 분인데 구월산이 토포되고 지아비의 시신을 찾으러 가서 토포장과 대면했던 것이며, 그 의연함과 용기는 길산을 감동케 했던바 있었다. 더구나 그에게 대장부의 길까지 누누이 일러 주시지 않았던가. 길산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뼈만 남은듯한 안부당의 잔약한 손을 잡아 그러쥐었다.

『어머니…』

地方短信

私學財團聯合會長에 權熙泰교장

◆사단법인 한국 사학재단연합회 경북도회회장에 權熙泰씨(49·경희여상교장)가 부회장에 金景燮씨(대동중고이사장) 馬德洙씨(安東商高이사장) 林龍萬씨(진량중고이사장)를 각각 선출했다. 【大邱】

技能올림픽入賞者 환영대회

◆제26회 국제기능경기대회 양장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돌아온 金承一군(21)과 전기용접부문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崔寅峻군(18)의 개선을 축하하는 전남도민환영대회가 2일하오2시 광주상공회의소에서 金宗鎬全南지사·高在鍾교육감등 각급기관장과 상공인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다. 【光州】

새디스크

■레오·스피드왜건새앨범 ‖ 「미치광이들」이란 별명처럼 정열적인 연주를 구사하는 그룹 레오·스피드왜건이 「그룹 보내지 말아요」는 「사내들」을 머릿곡으로 담은 새앨범. (地球)

■도니 앤드 마리·오스먼드 앨범 ‖ 남매듀엣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도니와 마리가 대표곡들을 모아 내놓았다. (成音)

■닐·다이어먼드의 영화음악집 ‖ 최근 「재즈·싱어」란 영화를 제작했던 다이어먼드가 영화속의 콘서트 장면에서 발췌한 영화음악. (오아시스)

流星의 賦 <12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亡兆의 日月 ⑦

『그렇다면 장차 이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소』

김우옹이 물었다.

『이현(而見=柳成龍의 字)과 숙부(肅夫=김우옹의 字)、경함(景涵=李潑의 字)이 요직(要職)에 함께 앉게되어 그때 의논하면 잘 해결될 것이오』

하는 이이의 대답이어서 김우옹은

『왜 지금 경이 경연에서 통렬하게 논박하여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시질 않소이까』

하고 따졌다.

『이 일은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게된 다음에야 비로소 할수 있는 말이오. 한데 지금은 임금이 신하들의 심중을 잘 모르오.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소. 지금 말을 꺼내 놓았다간 우리들까지 붕당으로 나뉘져 조정을 시끄럽게 한다고 여길 것이고 임금은 우리의 충정을 알아주지도 믿어주지도 안할 것이오. 그렇게 되면 다른 소인(小人)들이 이 기회를 틈타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얻게 하는 결과가 될뿐이오』

이이의 말은 이처럼 생각했다.

병자년 이월(선조 9년) 이이는 조정을 떠나기에 앞서 박순에게 이런 말을 했다.

『유성룡과 김성일이 고향에가서 돌아오지 않는것을 보며 필시 무슨 이간책(離間策)에 동요되어 있는 것이아닐까 하오. 상감께 잘 아뢰서 특명으로 불러오게 하시오. 그리고 김우옹이 요즘 임금으로부터 소원한 대접을받고있는데 역시 위에 아뢰어서 경연(經筵)으로 끌어들여 이발(李潑)등과함께 여론을 바로잡게하고 정철도 오지않으니 역시 특명으로 불러야 할것이오. 아울든 인재를 모아야하지않겠소. 사람을쓸 때 권형(權衡)처럼 정확하게 평량하여 딴의논을못하게 화합케하고 흥분을 진정하도록하면 1、2년동안에 조정은 편안하게 될것입니다. 그렇지못하면 속된 이견이 승(勝)하고 청의(淸議)는 쇠하여 장차 조정이 혼탁하게될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렇게되면 청명(淸名)은 모두 김효원의 동배들에게 돌아갈것이며 전배(前輩=西人)들은 크게 인심을 잃을 것이오』

박순은 이이의 번의(飜意)를 간절히 권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발、송대립(宋大立)、어운해(魚雲海)、허상(許鏛)、안민학(安敏學)등이 송별(送別)의 예를 다하려 찾을 때 이이가 한말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지금 정론(定論)하겠으니 제공들은 들으라。 권세 잡은 간신들이 조정을 흐리게 하고 어지럽힌지가 이미 오래였는데 그 간신들을 숙청하는데 심의겸의 공이 크지 않았는가。 김효원이 나라 일을 하려면 마땅히 거실(巨室)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것인데도 전배(前輩)들을 배척하여 사림이 날로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공론이 효원을 배제하여 외직으로 나가게 하였으면 그만인데 전배들은 아직도 미워하고 있으니 그것은 그들의 죄이다。 지금부터는 서로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터놓고 의논하여 매사를 처리하라。 그렇게 하면 만사가 형통할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조정의 근심은 풀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이이가 물러난 뒤 조정의 사정은 더욱 험악하게 되었다。

文化短信

漢文교육硏 발족

전국대학의 漢文學 교수및 중·고교 한문교사 2백명으로 구성된 漢文교육연구회가 지난달 27일하오 서울誠信여대 강당에서 발족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李家源박사(延世大교수)가 회장에, 閔丙秀(서울大교수)、李源周(啓明大교수)、金彰顯씨(서울昌文여고교장)가 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전승陶藝協 창립전

한국전승도예협회(회장 유근열)는 同협회창립회원전을 8일부터 13일까지 롯데쇼핑센터 5층화랑에서 갖는다. 이번창립회원전에는 1백여점의 작품이 출품되는데 판매된 작품대가운데 30%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기금으로 기탁된다.

言語교양大學 개설

한국언어문화원은 6일부터 11일까지 대학문화관에서 창립10주년기념 言語敎養大學을 연다. 시간은 매일 하오7~9시. 문의 ☎261-1241、3097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지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밀크 스토아 케쉬어구함 : 풀타임과 파타임
(유경험자 원함) DOWNTOWN지역
☎ : 925-0339

파타임 남자 헬퍼구함
848 MARKHAM RD.
☎ : 438-1528

COOK(한식과 일식), 웨이트레스 구함
2432 EGLINTON AVE. E.
☎ : 759-8512 CHOI'S레스트랑

인쇄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 : 746-0675

웨이트레스 풀타임1명, 파타임 1명
주말에 주방일 도우실분 1명
☎ 532-2727

초저녁 사무실
청소할분 구함
☎ : 977-1110

도넛샾에서 일하실
1. 풀타임, 파타임 여자분 구함
2. 남자 1명 밤일 하실분
☎ : 531-2689

거주 하셔서(5일/W.)석달된 여자애기와 4살된
여자애 돌봐 주실분
☎ : 444-5778 미세스 Chalambalacis

재봉사 구함 (남·여)
• 약간명 • 유경험자 • 좋은 대우
•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 362-2300

입주하셔서 두 애기 봐주실분 구함
$400~$450
☎ : 783-0683(낮), 665-4853(밤) 미세스 하

매매및 양도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 656-7753

가게매매 : 직접내방원함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1385 WESTON RD. (제인×웨스턴)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성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 535-2804

백커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
325 ST. GEORGE ST.
☎ : 924-7896 미스타 리

백커 프렌차이즈 급매 :
1351 DANFORTH RD.
☎ : 267-2647

아이스크림 기계 팝니다 :
☎ : 535-7772, 439-8885 (오후6시 이후)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이주관계상
매매코자 함, 2 베드룸 달려 있음
☎ : 259-8139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이상, 리스5년, 옵션10년
전화번호 : 822-0363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 465-4003

번잡한 노스·욕 몰안에 있는 스토아 매매
신산한 쥬스,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Fast Food취급
자동기구 완전 구비되었음, 남편의 직장전근상
매매코자 함. 그로스 Profit : 주매상 $1500의 73%
Asking : $40,000 ☎ : 249-3914
(CALL ONLY 7 : 30PM to 10 : 00PM) ZARINA

자동차 매매 : 76년도 핀토·스테이숀 왜건
POWER핸들, POWER브레이크(49,000마일)
☎ : 742-0434 좋은 콘디숀임

SMOKE & GIFT SHOP매매 : 주매상 $6000보장, 리스6년
+5년 옵션 게임수입으로 가게운영비용 일체 지불할 수 있음.
☎ : 1-335-8946

가게 렌트
• 영·스트릿(새 교외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지역임
(가게이름 : VALDI DISCOUNT FOOD STORE)
• 자본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높은 이윤및 매상이 가능
• 전화연락 : MRS. POPP(223-1606)

밀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
ASKING 17000+스탁
511 MARLEE AVE. NORTH YORK

12년동안 계속 성업중인 비지네스 매매
MEAT및 이와 관계있는 품목 취급, 호텔, 레스트랑,
BAR등, 고정손님 있음, 쿨러, 냉동기, 2 냉장고.
그로스 년 $600,000
☎ : 449-1710 Call. VINCE CAIRO
PETER L. MASON LTD.

성업중인 BAKERY 매매
TOTAL PRICE $130,000 7만달러 다운페이
CASH원함
1603 CLARKSON RD. MISSI. (오후 내방)
7시 까지 미스타 김

그로서리, 과일과 야채, 마른음식등
식료품을 취급하는 가게 매매
많은 아파트 빌딩으로 둘려 쌓여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크기가 양쪽 1700피트, 짧은 시간에
경영할수 있는 비즈네스.
주매상 $3500 이상 가능, 낮은 렌트, 주인이 이주상
팔고자함.
ASKING $18900(많은 EQUIPMENTS,
쿨러)+스탁.
☎ : 425-1255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I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 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하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용

미 용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타일 •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수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3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나 라 운 수
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충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자동차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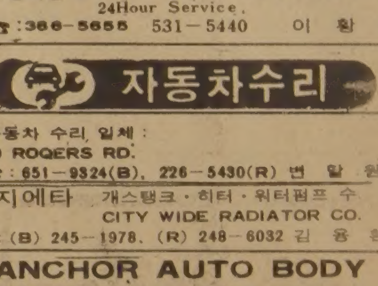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일 원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한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S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 판매
☎ : 245-5122
32A REXDALE BLVD.
(AT ISLINGTON AVE.) 조 혜숙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